

발행인·박성대/편집인·김정길/주간·한학동/편집·정만진, 홍익선, 홍헌득/발행처·계성학교 총동창회/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053)255-3900  
FAX(053)256-4942/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인쇄처·민기획, 홍임호/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244-17 ☎(053)256-8534, FAX(053)255-7831

## 계성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 일시:2007년 2월 9일(금) 18:30 • 장소:대구그랜드호텔



## 계성 100년이 새롭게 시작되는 첫 해!

### 2007년도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2007년 2월 9일 오후 6시 30분 대구 시내 범어네거리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2007년 계성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가 열렸다.

먼저 각기별 참석자들의 인사가 있은 뒤 강석교(27회)동문에 대한 장수상 시상 이 있었다. 계성 장수상의 수상자가 발표되자 장내를 가득 메운 350여명의 동문들 은 큰 박수로 선배를 축하했다.

박성대(38회) 총동창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 동안 회장직에 복무하면서 여 러분의 협조로 100주년 행사를 잘 마치게 되었고, 부족한 점이 <2면 계속>



(株)三原綜合建築士事務所  
ARCHITECTURE & ENGINEERS CO.,LTD.

57-9, Dongindong 2-ga, Jung-gu, Daegu, Korea  
Tel : 82-53-425-1931 Fax : 82-53-422-4921  
E-mail : sw6730@chol.com http://www.cmsamwon.co.kr

대표이사 윤 철 준 (50회)

since 1975 **SAMWON**



인사말

#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듬는데 앞장서야...



사랑하는 계성가족여러분!

올 겨울은 유난히 따뜻하여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환경학자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올 겨울이 몹시 추웠다 해도, 작년 모교 개교 100주년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난 그 때의 열정과 흥분으로 추운 줄도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동문 여러분이 보여주었던 협조와 관심에 이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작년 계성의 무한한 힘을 확인했고, 그 힘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가 각각 다른 방향에서 나뉠대로의 성장을 통해 자신의 환경에서 최대한 햇빛을 받아 궁극적으로

하나의 나무를 성장 시키듯 우리 계성인들이 모교의 성장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자부심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생각해보니 올해는 또 다른 100년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2월 9일에 있었던 총동창회 총회에서 제가 11대 총동창회 회장으로 재임되는 과정에 젊은 기수의 후배들이 총동창회에 바라는 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과 총동창회에 대한 충실어진 충고를 새겨들으며 다시 한번 헌신하여 화합하는 동창회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보아도 합리적이며 총동창회가 진일보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나간 해는 우리에게 당면한 행사를 위해 총동창회가 역량을 모았다면 이제는 그동안 축배를 들기에 바빠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들을 둘러보며 진정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계성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는 풍토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그 동안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신바람이 나면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신바람은 결국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계성인은 어디에 있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중추적인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분들은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위에 빛으로 또는 향기로 기여하며 모교에서 배웠던 봉사와 개척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다져온 역사를 어찌 2006년 한해의 행사로 다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 행사는 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의 매듭을 짓는 행사이지 결코 100년을 마무리하는 행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 해는 계성의 역사가 또 다시 100년을 향해 굴러가는 첫해이며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먼 길로의 여행을 위해 하나하나 챙기며 차곡차곡 준비하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의 계성을 위해 미래를 설계하고 다져나가야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창회 장학 기금을 더 늘여가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좀 더 우리 계성가족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정기총회 때 학교법인 김태동 이사장도 밝혔듯이, 모교는 사학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걸림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통의 계성이 현재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들 계성 동문들은 허탈해했습니다. 앞으로는 모교의 모습에서 옛날의 기상이 사라지는 것에 마음 아파하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교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피고, 더 나아가 걸림돌을 직접 치워가며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다듬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계성가족 여러분!

2007년을 시작하는 계절 3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새 기운을 충전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대지를 푸르게 물들이고 있듯이 우리 모두 자신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열정과 기를 모아 이 한해를 자신들의 해로 만들 것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던지 계성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그 자랑스러운 계성이 이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갑시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늘 즐거움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성 대**  
(38회·총동창회장)

## 제11대 총동창회장에 박성대 동문 유임

### “하던 사업에 박차 가하고, 동창회 화합 굳건히 할 터”

많았지만 여러 동문들의 도움으로 장학금 23억원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맞게 될 새로운 100년의 출발점이 올해입니다.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임이 다만 일체 유심조라 했습니다. 누가 회장이 되던 간에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인은 이만 물러갑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했다.

또한 신성택(45회) 명예회장은 축사에

서 「제가 장학재단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창회에서 11억원, 학교법인에서 12억원 모았습니다. 티끌모아 만든 소중한 돈이기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재단에서 내는 돈은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기에 동창회와 재단이 2원화하여 운영하되 서로 협력하여 잘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며 그간의 동창회 장학금 현황을 보고했다.

뒤이어 학교법인 계성학원의 김태동 이사장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 인사를 한 후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동문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 속에 성대히 마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장학 기금 23억원은 박성대 회장과 신일회(44회) 전 이사장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계성의 향학정신과 개척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동문 여러분의 노력과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개정 사학법의 도입으로 학교가 어려워지지만 이것을 넘어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동문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전통은 사라지고 자만과 침탈의 어려운 시기에도 교가에 뿌렸이 나와 있는 그 계성의 정신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계성 새 역사 창조의 걸림돌인 사학의 말살정책을 동문들이 하나가 되어 치워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하나가 되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축사를 했다.

한편 김용태(41회) 전장관은 치사에서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우리 계성 학교로 볼 때는 희망적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고 희망적인 의견을 내어 놓았다.

축사 및 치사의 순서가 끝나고 김정길(56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의 업무 및 경과보고가 진행되었으나 뷔페로 준비된 저녁 만찬이 홀 중앙에 있었고, 시간도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을 넘긴 터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여러 동문들의 의견이 있어 업무 및 경과보고는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이어서 이진복(69회)감사는 감사 보고에서 2006년 7월과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가 있었으며 그 결과 업무감사에서는 100주년 기념 체육대회가 내실이 부족했다는 점과 함께 총동창회 사무국이 좀더 동창회 활성화의 주체가 되어 줄 것, 각기 별의 미수금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서 2006년 예산 결산과 추정 예산안도 유인물로 대치하자는 의견들이 받아들여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임원 개선으로 곧바로 넘어 갔다.

신성택 명예회장이 사회를 본 임원 개선에서 김성수(46회)동문이 발언권을 얻어 「동창회와 종친회는 선배들과 어른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대교체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젊은 피를 수혈하여 총동창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0대 기수와 50대 기수에게 임원직을 넘기실 의향은 없는지요?»하고 의견을 내놓자 몇몇 동의를 하는 박수가 나왔다. 그러나 박성대 회장의 열정과 추진력이 검증 받은 점을 두루 감안한 다수 의견에 따라 박성대 회장이 11대(07-08) 회장에 연임하는 것으로 임원 개선이 끝났다.

박성대 회장은 「앞으로 화합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토론을 통해 추대를 받아야 정당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수락 연설이 있고 나자 정원각(63회, 모교 음악교사) 동문의 지휘로 교가 제창이 이어졌다.

3부 만찬은 저녁 식사 시간으로 늦은 감이 있는 8시쯤 회장단의 케익 절단과 함께 시작되었고 만찬동안 홀의 벽면에는 100주년기념 계성가족 체육대회 장면이 빔 프로젝터로 보여지고 있었다.

글·한학동(64회)



▲ 축하 케익절단 모습.



2007년도 재경 계성 신년교례회 스케치

# 100주년을 발판으로 200년의 씨를 심자

동창은 학연으로 맺어진 집단이다. 우리 계성학교 동문은 혈연, 지연만큼 연대가 끈끈하다. 그것이 자랑이자 미덕이다. 친형제도 때로 서먹하고 부담스럽다. 그러나 가끔 불러내는 선후배, 동기의 호출에는 허겁지겁 달려 나간다. 부담 없는 그리움 때문이다.

동창회는 비영리 친목단체다. 강제성, 구속력이 없다. 오로지 자발적 충정으로 꾸려지는 모임이다. 단박에 수십 년 세월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력이 있다. 특히 객지에 살면서 들려오는 동창의 목소리에는 울컥, 흥분되기도 한다.

2007년 재경 동창회 신년 교례회 및 정기 총회는 저마다 그런 흥분으로 종종 걸음을 쳤다. 2007년 2월 15일(목) 19:00시,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옆에 있는 상제리제회관 휘앙새홀로 동문들이 모였다. OECD 국가답게 코리안 타임은 없다. 200여 동문들이 정시에 자리를 메웠다. 38회 원로 동문에서부터 78회까지, 그야말로 노소동락이다.

사무국장 이응재(64회) 동문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됐다. 개회, 기도, 국민의례, 동문간 새해 인사, 조준제 회장 인사, 박성대 총동창회장 축하, 신성택 장학재단 이사장 축하, 김용태 전회장 격려사, 업무 보고, 예산안 심의 등이 이어졌다.

임원 개선은 반충남 임시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총회 전 미리 열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현회장의 연임을 추진했다. 연임된 조준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주년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동문 제위에게 감사하고 그 정신과 열기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박성대 총동창회장님과 팀웍을 더욱 공고히 하여 200주년을 준비하는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창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니요 이념으로 뭉친 비밀 결사도 아니다.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동창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의 지혜, 재치, 헌신, 노력이 요구된다. 신임회장은 기대를



▲ 재경지부 정기총회에서 축하케익 절단 모습.

걸게 하는 몇 가지 계획도 발표했다.

100주년 행사에 총력을 기울이느라 작년에는 동문체육대회를 하지 못했다. 아쉬움과 불만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 체육대회는 그것을 벌충하고도 남을 만큼 성대하고 화끈한, 재밋고 신나는 체육대회를 준비하겠다고 한다. 동문들의 동호회 모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약속했다. 산우회, 계우회, 계마회, 기별 등산모임 등에 재경 동창회가 후원 세력이 되겠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모인 집단이다. 정당은 정치적 이념과 이익, 종교는 신앙, 종친회는 씨족의 유지계승이 목적이다. 그것들에겐 강제성과 구속력, 당근과 채찍이 있다. 동창

회는 실존이기도 하고 추상이기도 하다. 리더십에 따라 동문들의 자발성이 발휘되면 실재하는 힘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허상이요 추상이다.

우리에게 100년을 이어온 저력이 있다. 뿌리칠 수 없는 인연이다. 그 힘이 기름이 되어 활활 탈 것이다.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좌석마다 담소와 술잔이 벌어졌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얼굴들이라 수인사 나누는 손길들이 분주하다. 얼굴이 불과해진 가운데 웃음과 우울이 교차된다. 모교, 계성학교의 현재 위상이 말씀이 아니더라는 걱정이다. 평준화 이후 지역적 특성의 결과다.

신흥 주택가가 아닌, 서문시장 생선 냄새 맡으며 영재의 출

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자립형 사립학교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대종을 이루었다. 동창회의 노력으로 23억이란 장학기금도 확보되었다. 그것을 종자로 하여 옛날의 계성학교, 일류 계성학교가 되어야 한다. 노병들의 무거운 마음을 털어버릴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이전과 자사고로의 전환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니 다행이다.

멀리서 욕하는 것이 가장 쉽고 멀리서 격려하는 것이 그 다음 쉽다. 밀착해서 비판하는 것, 이끌고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창조적 사랑이다. 동창회는 그런 사랑을 먹고 사는 유기체다.

글 · 이우상(61회 · 소설가)



▲ 상제리제회관에서 열린 재경지부 정기총회 모습.

## ‘68회 동기회’ 재학생 7명에 어학연수 선물

### “후배 사랑이 모교 발전 디딤돌”

2006학년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계성학교 재학생들의 어학연수가 있었다.

68회가 홈커밍 행사 때 학교 측에 전달한 장학금으로 7명의 학생이, 올해 모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호주 고스포트고교에 2주간(1월 29일 ~ 2월 11일) 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이보다 앞서 10명의 장학생과 1명의 지도교사로 이루어진 말레이시아 어학 연수단은 4주간(1월 14일 ~ 2월 10일)의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동문들의 장학금으로 해외 어학연수가 계획되자 학교법인에서는 말레이시아 어학연수에 필요

한 경비 1,450만원과 호주 연수단에 함께 파견한 교사 연수단 5명의 경비 1,500만원을 지원해 주어 동창회와 법인이 이 행사를 함께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접한 지역의 신문들은 취재에 열을 올렸다.

영남일보에는 교육란 「우리학교 이런 자랑」편에 이 사실을 보도했고, 매일신문에서는 「후배 사랑이 모교 발전 디딤돌」이라는 제하에 이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동창회의 역할과 이에 발맞추어 동행하는 학교법인을 소개했다.



#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신 동문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며 6만 동문 모두가 10구좌(100,000원) 이상 출연하여 모교 개교100주년을 맞아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고 그 이름을 글로벌화 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 장학기금 납부자

(2006. 11. 1 ~ 2007. 3. 6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 성명  | 기수 | 납입금액       | 성명       | 기수 | 납입금액       |
|-----|----|------------|----------|----|------------|
| 박성대 | 38 | 30,000,000 | 송기호      | 43 | 100,000    |
| 조영주 | 60 | 5,000,000  | 전재규      | 43 | 100,000    |
| 곽병영 | 45 | 1,000,000  | 정문원      | 43 | 100,000    |
| 황성길 | 51 | 1,000,000  | 정진구      | 43 | 100,000    |
| 정인표 | 56 | 500,000    | 김양상      | 44 | 100,000    |
| 양화송 | 43 | 200,000    | 서헌주      | 57 | 100,000    |
| 정조섭 | 43 | 200,000    | 김영근      | 58 | 100,000    |
| 이영호 | 64 | 200,000    | 권혁중      | 60 | 100,000    |
| 허종중 | 40 | 100,000    | 서성       | 60 | 100,000    |
| 강창수 | 43 | 100,000    | 김성수      | 62 | 100,000    |
| 김병진 | 43 | 100,000    | 4·3회(서울) | 43 | 1,000,000  |
| 김치운 | 43 | 100,000    | 물금회(서울)  | 43 | 1,000,000  |
| 오진  | 43 | 100,000    | 팔공회(서울)  | 43 | 500,000    |
| 윤종우 | 43 | 100,000    | 55회 동기회  |    | 3,000,000  |
| 은성수 | 43 | 100,000    | 68회 동기회  |    | 10,000,000 |
| 이상원 | 43 | 100,000    | 고령지부     |    | 300,000    |
| 총합계 |    | 55,700,000 |          |    |            |

## 100주년 사업 부담금

(단위 : 원)

| 기수  | 납입금액    | 기수         | 납입금액      | 기수     | 납입금액       |
|-----|---------|------------|-----------|--------|------------|
| 27  |         | 48         | 500,000   | 69     |            |
| 28  |         | 49         | 500,000   | 70     | 1,000,000  |
| 29  |         | 50         | 500,000   | 71     | 1,000,000  |
| 30  |         | 51         | 500,000   | 72     | 1,000,000  |
| 31  | 100,000 | 52         | 1,000,000 | 73     | 1,000,000  |
| 32  | 100,000 | 53         | 1,000,000 | 74     | 500,000    |
| 33  | 100,000 | 54         | 1,000,000 | 75     | 500,000    |
| 34  |         | 55         | 1,000,000 | 76     |            |
| 35  | 100,000 | 56         | 1,000,000 | 77     |            |
| 36  | 100,000 | 57         | 1,000,000 | 78     |            |
| 37  |         | 58         | 1,000,000 | 부산지부   | 3,000,000  |
| 38  | 100,000 | 59         | 1,000,000 | 울산지부   | 3,000,000  |
| 39  | 100,000 | 60         | 1,000,000 | 시카고지부  | 500,000    |
| 40  | 200,000 | 61         | 1,000,000 | 뉴질랜드지부 | 500,000    |
| 41  | 300,000 | 62         | 1,000,000 | 구미지부   | 500,000    |
| 42  |         | 63         | 1,000,000 | 울진지부   | 300,000    |
| 43  | 300,000 | 64         | 1,000,000 | 인천지부   | 1,000,000  |
| 44  | 300,000 | 65         | 1,000,000 | 안동지부   | 1,000,000  |
| 45  | 300,000 | 66         | 1,000,000 | 서울지부   | 10,000,000 |
| 46  | 300,000 | 67         | 1,000,000 | 철곡지부   | 300,000    |
| 47  | 500,000 | 68         | 1,000,000 |        |            |
| 총합계 |         | 47,000,000 |           |        |            |

## 회보구독료 납부자

(2006. 11. 1~2007. 3. 6까지 입금내역임)

### ▷100,000원

김뢰성(39회), 정문원(43회), 이진영(59회)

### ▷70,000원

부산 49동기회

### ▷50,000원

장병환(44회), 신성택(45회), 이성덕(47회)  
이상근(57회)

### ▷30,000원

김태창(41회), 정광명(44회), 김정문(44회)  
백창곤(50회), 김덕수(50회), 변홍섭(52회)  
갈병조(52회), 정갑진(54회), 최성교(56회)  
배광순(57회), 울진지부

### ▷20,000원

안우홍(37회), 김창식(40회), 이무호(42회)  
김재석(44회), 최윤호(51회), 노태교(51회)  
송종영(52회), 이환(53회), 손태암(53회)  
박민희(54회), 이성수(55회), 손문호(55회)  
안영환(56회), 박행수(57회), 최홍식(59회)

## 장학기금 및 회보 구독료 기별 납입금 내역

(2004. 8. 1 ~ 2007. 3. 6까지 입금 내역임) (단위 : 원)

| 기별    | 장 학 금       |             |     | 회보구독료      |       |
|-------|-------------|-------------|-----|------------|-------|
|       | 기별부담금       | 개인          | 인원  | 금액         | 인원    |
| 23    |             | 400,000     | 4   | 60,000     | 4     |
| 26    |             |             |     | 50,000     | 1     |
| 27    |             | 5,000,000   | 1   |            |       |
| 29    | 300,000     | 1,000,000   | 1   | 30,240     | 3     |
| 30    | 300,000     | 200,000     | 2   |            |       |
| 31    | 1,000,000   | 200,000     | 2   | 30,000     | 2     |
| 32    | 300,000     | 300,000     | 1   | 40,000     | 2     |
| 33    | 1,500,000   | 300,000     | 2   | 10,000     | 1     |
| 35    | 200,000     | 150,100,000 | 2   | 170,000    | 7     |
| 36    | 300,000     | 100,000     | 1   | 150,000    | 13    |
| 37    |             | 15,100,000  | 2   | 150,000    | 5     |
| 38    | 1,600,000   | 36,600,000  | 9   | 80,000     | 6     |
| 39    | 1,000,000   | 900,000     | 4   | 690,000    | 39    |
| 40    |             | 7,500,000   | 10  | 270,000    | 12    |
| 41    | 5,000,000   | 11,245,000  | 5   | 110,000    | 7     |
| 42    | 5,000,000   | 16,600,000  | 13  | 390,000    | 20    |
| 43    | 5,000,000   | 4,400,000   | 16  | 170,000    | 4     |
| 44    | 5,000,000   | 27,930,000  | 28  | 880,000    | 37    |
| 45    | 7,000,000   | 48,930,000  | 16  | 530,000    | 28    |
| 46    | 7,000,000   | 8,700,000   | 15  | 260,000    | 19    |
| 47    | 7,000,000   | 42,050,000  | 11  | 400,000    | 21    |
| 48    | 7,000,000   | 1,750,000   | 7   | 260,000    | 9     |
| 49    | 7,000,000   | 11,950,000  | 12  | 410,000    | 15    |
| 50    | 10,000,000  | 51,700,000  | 8   | 700,000    | 25    |
| 51    | 10,000,000  | 21,900,000  | 9   | 840,000    | 58    |
| 52    | 10,000,000  | 142,050,000 | 22  | 790,000    | 41    |
| 53    | 10,000,000  | 115,000,000 | 19  | 1,060,000  | 57    |
| 54    | 10,000,000  | 3,350,000   | 12  | 970,000    | 60    |
| 55    | 6,000,000   | 2,600,000   | 13  | 470,000    | 30    |
| 56    | 10,000,000  | 69,330,000  | 21  | 1,190,000  | 58    |
| 57    | 10,000,000  | 390,000     | 3   | 610,000    | 35    |
| 58    | 10,000,000  | 12,740,000  | 12  | 880,000    | 30    |
| 59    | 10,000,000  | 1,150,000   | 7   | 600,000    | 29    |
| 60    | 10,000,000  | 10,120,000  | 20  | 820,000    | 56    |
| 61    | 10,000,000  | 3,210,000   | 4   | 300,000    | 22    |
| 62    | 10,000,000  | 200,000     | 2   | 410,000    | 15    |
| 63    | 10,000,000  | 1,620,000   | 8   | 570,000    | 42    |
| 64    | 10,000,000  | 12,480,000  | 15  | 860,000    | 49    |
| 65    | 10,000,000  | 300,000     | 3   | 270,000    | 20    |
| 66    |             | 1,000,000   | 6   | 300,000    | 18    |
| 67    |             | 100,000     | 1   | 150,000    | 6     |
| 68    | 10,000,000  | 600,000     | 4   | 430,000    | 31    |
| 69    |             | 650,000     | 8   | 500,000    | 24    |
| 70    | 7,000,000   | 300,000     | 4   | 120,000    | 6     |
| 71    | 7,000,000   | 570,000     | 7   | 370,000    | 27    |
| 72    |             | 240,000     | 1   | 100,000    | 8     |
| 73    |             | 130,000     | 2   | 140,000    | 9     |
| 74    | 7,000,000   | 200,000     | 3   | 30,000     | 3     |
| 75    |             |             |     | 60,000     | 3     |
| 76    |             |             |     | 10,000     | 1     |
| 78    |             | 50,000      | 1   | 20,000     | 2     |
| 원주지부  |             | 400,000     | 13  |            |       |
| 고령지부  |             | 300,000     |     |            |       |
| 재천지부  |             | 400,000     |     |            |       |
| 포항지부  |             | 3,000,000   |     |            |       |
| 영천지부  |             | 1,000,000   |     |            |       |
| 시카고지부 |             | 2,000,000   |     |            |       |
| 구미지부  |             | 500,000     |     |            |       |
| 영덕지부  |             | 500,000     |     |            |       |
| 경주지부  |             | 1,000,000   |     |            |       |
| 울진지부  |             |             |     | 30,000     |       |
| 무명    |             | 140,000     | 3   | 545,000    | 34    |
| 계     | 248,500,000 | 852,475,000 | 398 | 19,285,000 | 1,054 |

최상득(60회), 이재희(60회), 권혁중(60회)  
김대현(61회), 최재경(63회), 김국진(68회)  
이상섭(73회)

### ▷10,000원

김재성(35회), 이승하(36회), 권태갑(36회)  
허동원(39회), 허종중(40회), 이영목(40회)  
김세만(42회), 문재근(44회), 김동규(44회)  
박승욱(45회), 이웅상(46회), 도재진(46회)  
김승보(50회), 권광부(50회), 한무길(51회)  
이원희(51회), 손병기(51회), 박화식(51회)  
박종철(51회), 김태근(51회), 김성식(51회)

김정웅(52회), 강준호(52회), 조규홍(53회)  
서주영(53회), 서재권(54회), 조원희(56회)  
손덕곤(56회), 김종철(56회), 이진호(58회)  
이병진(59회), 김효종(60회), 권병두(60회)  
박상준(61회), 한상일(63회), 유태호(65회)  
문경태(65회), 김성수(67회), 홍창호(68회)  
김정태(69회), 무명

계82건 1,750,000원(누계:19,285,000원)  
※혹 착오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기회 순방 · 40회

# “트럭타고 수학여행 가고 수업은 천막에서 했어”

## “중·고 분리 후 고 1회로 졸업했지만 그래도 우린 계성 40회야”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1주일 만에 전쟁이 터졌다. 당시엔 지금처럼 3월이 아니라 6월에 신학년도가 시작되었다. 동서남북 네 반 입학했던 동기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57년 후인 2007년 3월 10일 12시, 이제 70대 중반이 된 김도년, 김상도, 김재봉, 김지영, 김홍근, 박영식, 박준식, 유상근, 임종해, 허종중 40회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북성로 삼정백화점 2층에서 학도병 모집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상근 동문도 면접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동행을 했던 2명의 동기들은 합격을 했지만 유동문은 불합격되었다. 그때 17세였다.

학도병 심사를 하던 계성학교 선생이 “아직 어리니 공부를 더 하거라”면서 불합격시켰던 것이다. 2007년 3월 10일 계성총동창회 회보편집국 기자와 만난 74세의 유동문은 “당시 불합격한 바람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그때 학도병으로 간 동기들은 많이 죽었어. 참전하고 1주일 만에 거의 전사했다고 들어.” 하고 회고하신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학교에 들른 김지영 동문은 본관 건물이 육군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수소문을 한 김동문은 서문교회에 가서야 비로소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전쟁통이라 처음엔 휴교를 했는데, 그 후 지금의 성재관쪽 언덕위에 설치된 가교사 생활을 하다가 서문교회로 옮겨가 계속 수업을 받았고, 졸업식은 제일교회에서 치렀다.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학교를 재정비했는데 5년제 계성중학교 4학년과 계성고 1회 입학생을 합쳐도 2반밖에 되지 않아 합쳐서 문과, 이과 2반으로 편성하여 계성 40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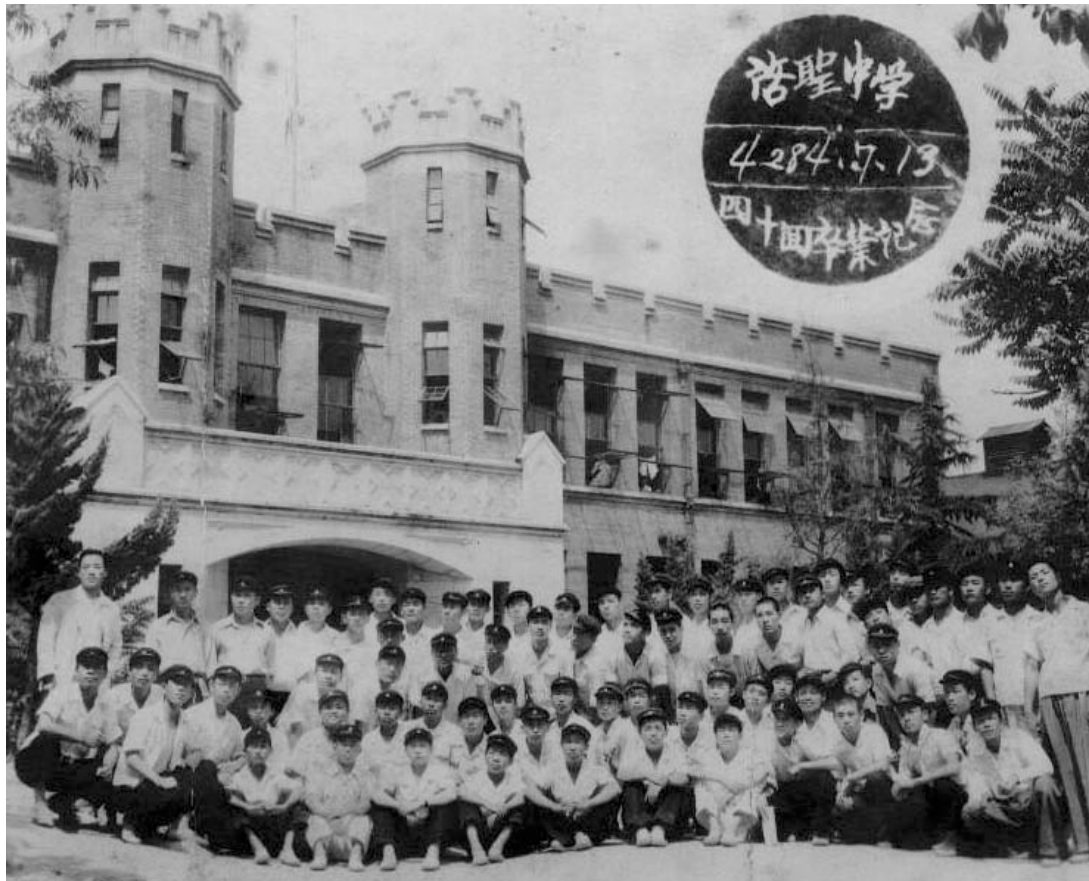
40회는 계성고 1회 졸업생이다. 5년제 중학교가 학제 개편으로 중고교로 분리되었는데 계성은 대구 제1호로 고교 인정을 받았다. “운동장에 학생 전체를 모아놓고 신태식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

생해.” 허종중 동문이 회고하신다. “너희들은 계성고등학교의 자랑스러운 1회야!” 그러나 100년 계성역사는 학제개편을 두루 감안안았으므로 계성고1회는 자연스레 계성40회로 총동창회에 등록된다.

그 무렵은 운동장이 지금의 동산병원 주차장 자리와 계성초등학교터 두 곳에 있었다. 당시 계성학교 청소년축구단은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할 만큼 쟁쟁했는데, 하루는 신도환 선생님(전 총동창회장)께서 길가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때 웬 사내 둘이 습격하여 짜구와 도끼로 신도환 선생님 목덜미를 찍었어. 선생님은 온몸이 그대로 피투성이로 변했고, 흥기는 목에 찍혀서 붙어 있었어. 우리가 범인들을 뒤쫓았는데 결국 서문시장 안에서 놓치고 말았어.”

김홍근 동문의 회고에 이어 김도년 동문이 말을 잇는다. “그날이 일요일이야. 교회를 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동산병원으로 달려갔는데 학년이 제일 낮다고 선생님이 나보고 신도환 선생님 수술실 앞에서 보초를 서라고 했어. 좌우 분열이 심해서 정말 흥흥하던 시절이었지.” 유상근 동문은 “신도환 선생님은 한겨울에도 핫팬츠를 입고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 뿔뿔이 만큰 열정이 대단한 분이셨지.” 하고 회고하신다.

합숙소 없이 교실 책상 위에서 자며 훈련을 한 축구부가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신태식 교장께서는 기뻐하시며 선수들에게 양식도 사주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포크, 나이프 사용법을 몰라 식사를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음악과 김명구 선생께서 식당을 돌면서 학생들에게 양식



▲ 졸업식을 마치고 단체사진 촬영. 하복을 입고 있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여름에 입학과 졸업을 했다. 아직 본관 건물에는 담쟁이가 보이지 않는다.



▲ 트럭을 타고 수학여행을 가는 광경이 이채롭다. ▲ 석굴암 앞에서 단체사진.



일제히 외친다. “멜로디, 멜로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

던 오종수와 이의창이 창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도

구결승전인데 과도한 응원전이 벌어졌지. 결국 일부 학생은 학교를 지키고 일부는 공격조를 편성하여 쳐들어가서 패싸움이 벌어졌지. 동산파출소 앞에서 싸우다가 애매하게 한문 선생님이 돌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어.” 김상도, 김재봉, 박영식, 박준식, 임종해 동문의 회고담이 끝없이 이어진다. 지면이 좁아 다 담을 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김교문(감사원 감사위원), 김근수(국회의원, 상주시장), 김봉운(재계동창회장), 김진기(국회의원), 김찬우(국회의원), 김홍근(대구라이온스총재), 엄주섭(한국증권기업연합회 부회장), 오준섭(동산의료원장), 정창근(안동성화원장) 등 저명인사들도 40회 동문이다. 계성고 1회 졸업동문, 아니 계성 40회 동문 선배님들의 건강과 다복하심을 기원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친다.

글 · 정만진(61회)

## 눈오는 날은 수업 안하고 전교생이 보리밭에서 눈싸움 고3때 한일극장 빌려 대구시민 상대로 연극 공연도

먹는 법을 지도하셨다. 약 70년 전의 일이다. 이 회고담이 나오자 동석해있던 40회 동문들이

음악선생님의 당시 별명이 ‘멜로디’였다고 한다. 정말 기억력도 대단하신 선배님들이시다.

고3때는 시내 한일극장을 빌려 연극공연도 하셨다. 사회는 서창식 동문이 보고 간판 그림은 허종중 동문이 그렸다. “김상기가 여장을 하고 출연했는데 진짜 여자같이 예뻐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지.” 그 무렵 우리 사회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뽀뽀머리였는데 계성은 머리카락을 약간 길렀다. 졸업을 앞두고는 제법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서 교사들의 단속을 피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단발령을 내렸다. “수학과 이도수 선생님이 단속을 들어온 교실에 있

망을 쳤어.”

장난을 친 옛 추억이 계속 떠오른다. “눈이 오면 수업 들어오는 교사들을 향해 눈뭉치를 던져 교실로 접근을 못하게 했지. 그랬더니 한번은 선생님들이 우리보고 이러지 말고 아예 학교 전체가 눈싸움을 하러 나가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어. 그래서 지금 성서 계대 자리의 보리밭으로 가서 청백전으로 눈싸움을 했어. 결국 나중에 학교에서 보리밭 주인에게 배상을 했다는 소문이 났지.”

“종합운동장에서 학교간 체육대회가 벌어졌는데 이제 축구에서 이긴 학교가 종합우승이 되는 거야. 대륜인가 능인하고 축



▲ 40회 월례회 모습.



인 터 브

# 세계가 인정하는 항암치료제 “진산”을 아시나요?

## 강상학 동문 “진산 공급은 내 생애 마지막 과업”



**강 상 학 (56회)**  
코인텍산업(주) 회장

MBC 2002년 2월 24일자 뉴스: (앵커: 생략) (기자: 인삼에서 추출해낸 분자량 2백만 개 가량의 당 덩어리인 “진산”이라는 다당제입니다. 국내 한 벤처기업과 원자력병원 윤연숙 박사팀이 동물실험을 벌인 결과, 이 다당제의 암세포 살해 능력이 기존 항암제보다 최고 18배가량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존 항암제와 달리 암세포를 없애는 T세포와 대식세포 등의 활성화를 높여주기 때문에 부작용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

다.) (인터뷰: 실험 결과 “진산”은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옮겨가는 것을 40%가량 억제했고, 암의 성장속도도 60%가량 늦었습니다. 특히 방사선 치료 뒤 크게 줄어든 골수를 다시 증가시켰고, 항암제 등에 의해 골수세포가 죽는 현상도 막아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 생략)

신문과 방송은 “진산”의 뛰어난 효능에 대해 계속 보도하고 있다. 앞에 든 MBC보도는 그 한 사례일 뿐이다. KBS 등 방송사, 매일경제신문 등 신문사의 보도는 물론이고 영국BBC방송까지 나서서 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해 “진산”의 효능을 보도했다.

‘Ginseng is cure all. It helps with high blood pressure, low blood pressure, poor digestion, stamina, muscle aches, anti-cancer, its good for everything. It’s a sure cure all. There’s no

side-effects if you eat too much’ (하락)

고혈압, 저혈압, 스테미너, 근육통, 항암 효과…… 과다 복용 시에도 부작용이 없다…… 본문을 더 읽어보면 “성기능에도 좋습니다”라는 물음에 “물론입니다. 특히 당신이 나이가 많다면……”하는 기사가 이어진다. 당연한 내용이다. 특허증이 이를 증명해준다.

‘한국 특허 제 144130호, 발명의 명칭: 면역증강효과를 나타내는 인삼단백다당체(“진산”), 특허권자: 한국원자력연구소, 1998년’, ‘한국 특허 제 0361187호, 발명의 명칭: 조혈 촉진작용, 골수 방어작용, 암세포 살해 면역세포 생성작용 및 방사선 민감작용이 우수한 인삼다당체, 특허권자: 한국원자력연구소, 2002년’, ‘미국 특허 제 655527호, The hematopoietic, myelopoietic, antitumor immune cells generating and radiosensitizing polysaccharide isolated from panax ginseng, 2003년’

“진산”제품은 세 종류이다. 도자기에 인삼추출액 100% 고



▲ 국립 원자력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강상학 동문(56회).

회장의 답변.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없을 만큼 진산 가격이 높은 이유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인삼을 완

한 일이지요. 현재 대전 시티즌 축구선수단을 비롯하여 꼭 필요한 곳에 무료 제공하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150여 명의 암환자,

를 위해 더 노력하고 연구에 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산을 드신 분들께서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연락이 올 때 지금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자의 마지막 질문. “진산 보급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요?” 강회장의 답변.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진산’의 우수성이 경영과 홍보의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고, 미국특허까지 받은 ‘진산’이 사장된다면 크나큰 손해라 생각되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산을 제 생애 마지막 사업으로 여기고 작게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나아가서는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진산 보급에 정진할 것입니다.” 회사 안에 작은교회로 차려놓고 끝없이 기도하는 강상학 회장의 진심이 국민 모두의 건강과, 나아가 인류의 희망이 될 날이 하루 빨리 도래하기를 기자는 두손모아 빌어본다.

글 · 홍역선(63회)

## 세계적 특허 “진산”, 국내산 인삼에서만 추출 3% 진산 뽑은 나머지 97% 인삼은 폐기물 불과

형분을 462g씩 넣은 두 병짜리 세트 “진산고”(924g)는 권장소비자 가격이 330만원이다. 20g짜리 60포로 구성되어 먹기에 좋게 만들어진 “진산젤”은 하루 1포씩 섭취하면 되는데 가격은 60만5천원이고, 인삼음료인 “진산-D”는 75ml짜리 10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20만원이다.

세계적 특허제품인 “진산”의 판매권자 코인텍(주) 강상학 회장은 우리 계성 동문(56회)이다. 기자는 강회장에게 “진산” 가격이 높은 이유부터 물어본다. 강

전 분해하면 불과 3% 정도만 진산이란 물질을 추출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분해된 인삼은 거름으로도 못 씁니다. 게다가, 순수 국내 인삼에서만 진산이 추출됩니다. 이만하면 누구나 진산 가격이 고가인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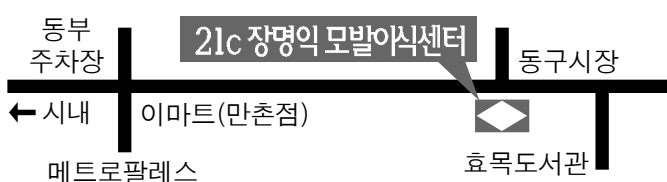
이 비싼 “진산”을 강회장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한다. 기자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렇게 하시지요?” 강회장의 답변.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진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당연

당뇨환자에게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소년가장의 가슴 아픈 투병사연을 듣고 완치시까지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진산을 국민에 환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계속된다. “진산을 판매하면서 느끼는 보람에 대해 한 말씀만 하신다면?” 강회장의 답변. “진산은 순수 국내인삼에만 약 3%가량 존재하며 나머지는 버려집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이고 이 3%의 소중한 추출물로 복용자들의 100%효과

## 21c 장명익 모발이식센터

모발이식전문 (무모증, 대머리, 눈썹, 수염) | 탈모치료전문



대 표

**장 명 익** (52회 · 동기회 회장)

TEL : (053)743-5504, 752-8478

❖ 계성가족 탈모고민 끝 ❖

동 토크방

# 수중 오존 발생 특허로 전국 시선 집중

## 의료기, 농산물 완벽세척, 100% 정수로 인류 '웰빙' 앞당길 터

### 전 병 준 (53회) 두레오존 대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세계적 조각가 자코메티의 패러다임이다. 이것을 산업에 적용한 것은 일본사람들이다. 일본이 만든 제품들 중에는 자그마한 것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상대에게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작으면 보호본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작지만 아무도 작게 생각하지 않는, 공장의 크기는 아주 소규모지만 기술력은 최고 경지를 자랑하는 큰 기업이 나타났다. 6평짜리 전국 최소 공장에서 수중 오존 발생 특허를 획득하여 전국적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두레오존’이 바로 그 곳이다. 두레오존 대표 전병준 동문(53회).

O<sub>3</sub>-오존…… 염소의 여섯 배나 되는 살균력을 가진 오존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이른바 ‘웰빙’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생활이 그런 수준 높은 웰빙에 도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제대로 살균되지 못한 의료기로 치료를 받고 있고, 농약 묻은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있고, 박테리아가 우글거리는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게 생활하고 있지만 결코 ‘웰빙’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인류의 이 오랜 숙원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였다. 물론 공기 중의 O<sub>2</sub>-산소를 오존으로 변형하여 강제로 물속에 주입하는 수중오존발생장치가 그 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장치는 생산한 오존은 물과 혼합되지 못한 채 단시간에 물 밖으로 유출되어버린 탓에 물 속의 오존농도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 유출된 오존가스가 인체의

폐와 점막을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완전한 수중 오존 발생 기술의 출현으로 이제 인류는 완벽한 웰빙을 구가할 수 있다!”라고. 기존의 오존생성방식과는 달리 물(H<sub>2</sub>O) 자체를 전기분해하여 오존을 발생시키는 특허기술을 세계최초로 개발해낸 두레오존의 전병준 동문이 인류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였기 때문이다.

전동문의 수중 오존 발생 기술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계명대학교 TMR센터로부터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등 인체에 해로운 대부분의 균을 박멸할 수 있고, 수중에서 1PPM 이상 고농도의 오존이 생성됨을 입증받았다. 특허를 받은 전동문의 수중오존 발생기술이 위 내시경 세척기 생산업체 V사에 핵심부품으로 납품되자 외국으로부터 비싼 수입약품을 사들이는 일이 없어졌고, 최근에는 해외로 수출



레오존이 수중오존발생장치라는 화사한 햇살을 한 움큼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두레오존의 수중오존발생장치는 어떤 물에서도 적용되는

전동문은 특허를 획득하기까지 14년의 시간을 보냈다.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실패를 거듭했지만 마침내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업이 잘 안 될수록 노래도 부르고 열심히 운동도 했지요. 깨진 사발에 입 맞추면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연구성과가 나타났고, 얼굴도 젊어졌습니다. 허허허.”

자기 전에도 기술연구에 대해 생각하고, 잠자리에 일어나면 바로 연구생각에 빠져들었다는 전동문. 항상 기도해준 장모님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는다.

대학에서 영어영문학을 가르치는 부인께서도 언제나 기도로 내조를 해주셨다고 한다.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인연합회가 발행한 <INNO-VENTURE Leaders> 2006년 11월호는 두레오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중오존발생기술은 그 사업영역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두레오존이 단기간에 지역을 대표하는 바이오환경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글 · 김정길(56회)

## 어떤 물에서도 통하는 수중 오존 발생 특허 기술

###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 바이오환경 전문기업

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녹즙생산업체에 원재료 세척용으로 납품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국내 7개 기업과 연구소 및 일본 바이오 업체도 두레오존의 수중오존발생장치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동경 의료기 박람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은 두레오존의 수중오존발생장치는 곧 열릴 독일 박람회에도 전시되어 세계적 시선을 이끌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정, 학교, 음식점, 병원 등에서 오염된 물 및 각종 균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류를 위해 두

신기술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의료기를 세척하지 못해 질병을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농약이 잔뜩 묻은 과일이나 채소를 완벽하게 깨끗한 먹을거리로 환골탈태시켜서 즐길 수 있죠. 물에서 철분을 낮추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을 정수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지금의 정수기들을 정말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을 만들어서 음용할 수 있게 해주지요. 용도가 너무 많아 하나하나 거론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수 없는 고생을 했지만 환갑을 지난 나이라고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전동문은 젊게 보인다.

40대 중반 정도라면 다들 믿을 듯하다. “어째서 이토록 젊게 보이는 걸까요? 오늘이 있기까지 그토록 고생을 하신 줄로 아는데 오히려 젊어보이니 이해가 어렵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전동문은 말한다.

“내 능력으로 이룬 성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호가 있었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였지요. 연구와 사

## 꽃집 자을병

경조화환 | 관엽 | 동서양란 | 꽃바구니

## 전 · 국 · 배 · 달

## 최 돈 문 (56회 · 동기회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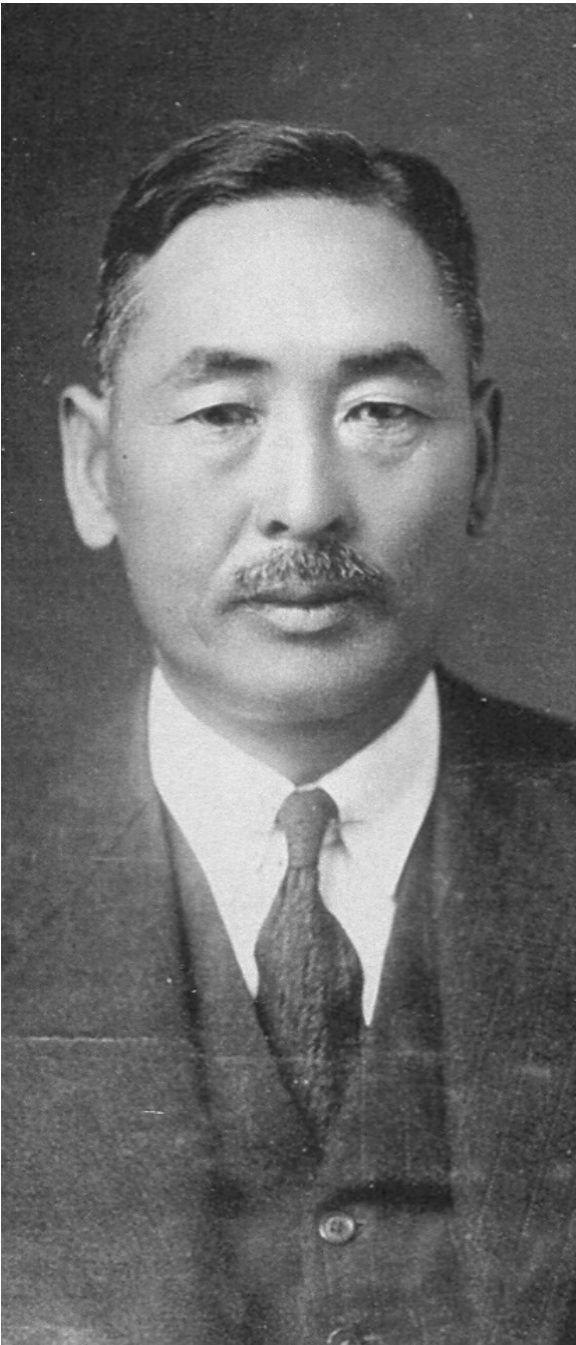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196(동인꽃도매상가입구)  
TEL : (053)424-0099 FAX : (053)424-4499  
H.P : 010-8822-1400  
E-mail : cdm1030@hanmail.net



특별기획

# 위대한 독립운동가 집안의 3대 계성 가족

## 김용규(4회) 목사님-장남 김 건(23회)-손자 김승보(50회) 동문



▲ 독립운동가 김용규 목사.(사진 : 목사님의 3남 김현곤님 제공)

대구시 신암동 선열묘지에 1978년 7월 15일 세워진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목사 김용규 선생 묘비>를 읽어 본다.

‘평생을 오로지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라와 이웃을 위해 뜻깊고 의롭게 힘쓰셨던 교우 金容圭 목사께서 여기에 고이 누우시다.

1895년 1월 24일에 태어나셨고 1968년 5월 20일에 부르심을 받으셨다. 1977년 10월 研堂 李甲成 지음’ 독립운동 33인의 한 사람인 이갑성 용이 쓴 비문이다. 묘비의 왼쪽 부분에 새겨져 있다. 묘비의 오른쪽은 청록과 시인 박목월이 쓴 추모시가 새겨져 있다.

읽어본다. ‘충실한 목사로서/ 어린 양들을 기르며/ 겨레의 양심을/ 굽히지 않고/ 곧게/ 깨끗하게/ 일생을 사신 / 김용규 목사님/ 그의 무덤 속에서/ 부활의 나팔소리/ 울려 오리라// 1977년 10월 대한시인협회장 朴木月 지음’

박목월 시인은 계성 23회 동문이다. 박목월 시인은 독립운동가 김용규 목사의 장남 김건(金健, 국제관광공사 이사관 역임)과 아주 절친하게 지냈던 계성학교 동기동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다.

대선배께서는 기독교 항일단체인 경지사(經志社)에 입사한 후 세 확장을 위해 동지를 규합하던 중 정인교(鄭仁果)목사의 피체로 또 다시 고문을 당했다.

1925년에는 목사 서품을 받았고, 대구서문교회, 경산 교회에서 교목하면서 선교사 버그만 씨를 통해 미국의 헐 국무장관에게 일본의 학정을 폭로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처럼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걸친 항일운동을 펼친데다 급기야 1937년에는 진주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으니 다시 일본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것은 예정된 결과였다.

독립이 되는 1945년까지 무려 37회에 걸쳐 구금, 투옥, 고문을 당하였으니 대선배께서는 하루라도 몸이 성할 날이 없었다.

1945년 광복 이전 약 7년간(1939년 이후)은 경산경찰서와 대구헌병대의 철저한 감시 속에 집 안에 갇혀 지내는 금족령을 당하여 포로 같은 생활을 겪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과 감시가 아무리 혹독해도 대선배의 항일투

### 조국 해방 그날까지 일본경찰에 37회나 체포 부친 김응두 선비께서 아들과 함께 투옥되기도

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용규 목사님 본인도 계성 동문으로 제4회 졸업생이니 까마득한 대선배 되신다. 게다가, 목사님의 손자, 곧 김건 동문의 아들 승보(承甫, 현대자동차 이사 역임, 현재 경창산업사 사장)씨 또한 50회 동문이니 3대가 내리 계성가족인 보기도문 동문집안이다.

우암(寓岩) 김용규 목사님은 경산군 남산면 반곡동에서 선비 김응두(金應斗)님의 외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일찍 선진문물에 개화한 집안에서 태어난 대선배께서는 기독교 입문 후 계성학교와 평양신학교(주기철 목사와 동기)를 졸업하셨다.

처음에는 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했는데 평소 일제의 만행에 분개해온 차였기에 1918년 광복회의 부름을 받아 바로 항일운동의 선봉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대선배께서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전도를 겸해 국민회 결사를 목적으로 전국 각지를 돌면서 항일운동을 펼쳤다. 그러다가 부친 김응두 선비, 동지 박승명(朴承明)과 함께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8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다가 이듬해 1920년에는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 모금을 위해 활동하다가 동지 이종식(李鍾植)과 함께 다시

지를 쫓기는 못했다.

마침내 대선배께서는 꿈에도 그리던 조국해방의 그날을 맞이하셨고, 1945년 8월 17일 경산군민 500여 명이 운집한 자리에서 ‘경산군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여운형의 ‘건준’과 무관한 경산의 자발적 조직임)으로 추대되었다.

1946년 10월 2일에는 대구에서 하루 전에 발생한 폭동이 금세 경산으로 번져왔다. 좌익폭동은 일제 때 관료인 영천군수를 붙잡아 몸에 석유를 뿌리고 태워죽였다.

폭도들은 당시 경산군수였던 대선배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대선배의 항일투쟁 경력을 잘 알고 있었던 폭도 지휘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대선배께서는 신상에 피해를 입지는 않으셨다.

1947년 12월 26일에는 충청북도 인사처장(경찰을 제외한 행정, 교육공무원 인사권자) 임명장을 받아 군수 4명을 임명하셨다.

1948년 6월 30일에는 경상북도 인사처장으로 전근하여 군수 6명을 임명하였고, 중앙정부에 경북도지사로 김의균, 경산경찰서장으로 장한우 씨를 추천하여 성사시켰다.

## 서 동 호 치 과

원 장 서 동 호 (65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 1502

TEL : (042)485-4493 FAX : (042)472-4492 H.P : 016-415-0551



“일제 앞잡이들과 그 후손들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한 자들조차 독립군 군자금 조달을 위해 활동하다 투옥되었다는 거짓말로 독립운동가언하며 명예를 누리며 사는 반면 대선배님과 같은 분은 국가적 추모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극심한 관료주의의 낭패이다.”

시간이 흘러 이제 건국의 어느 정도 잡히자 당시 정치권의 핵심인물들인 신익희, 함태영, 안재홍 제씨의 정계 투신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치와 출세에 전혀 뜻을 두지 않았던 대선배께서는 대구성경고등학교(대구신학전신) 교장을 맡아 후진양성에 힘쓰다가 남산교회 담임목사로 일하셨다.

한국전쟁 때는 전국기독교구국회 회장으로 활동했고, 1952년에는 경북 삼일동지회 회장으로 취임하셨다.

김용규 대선배님의 뜻깊은 지도자적 품성은 다음의 일화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1950년 대구의 목사님들은 너나 할것없이 모두들 동해안 감포로 갔다.

당시 미군은 영천이 무너지고 곧 이어 울산 태화강 방어진까지 붕괴되면 인천상륙작전도 포기하고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계획을 세웠다(정일권 회고록). 정일권 회고록에 따르면 미군은 당시 한국인 약 10만 명을 광도와 하와이로 데리고 갈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부응하여 대구의 목사님들은 미국 선교사의 주선으로 다들 동해안 감포에 마련된 임시 대기소로 갔던 것이다. 일본으로 떠나기 위해서였다.

물론 이런 목사님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 당시 전황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배님은 혼자 대구에 남았다.

남산교회 현직 목사로서 대선배님은 “우리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피난을 가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목사인 내가 떠날 수 없다. 나는 단 한 사람의 신도라도 남아 있다면 그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 머무를 것이다”하시며 감포로 가지 않으셨다.

교회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물론 전쟁이 끝나고 대선배님은 교계의 영웅 대접을 받았다.

대선배님의 아내 김순학(金順學)님은 일본 조일신문(朝日新聞)에 삼국 거상으로 소개될 만큼 대단한 무역상 김성을 장로님의 따님이셨다.

김성을 장로님은 조선의 부산, 중국의 청도, 일본의 대판을 연결한 큰 무역상이었던 만큼 일찍 개명한 분이셨다. 덕분에 김순학님은 1911년 대구신명학교(당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7세의 나이로 서울 정신학교로 유학하셨다.

기자가 생각할 때, 2007년인 지금도 17세된 딸을 서울로 유학보내는 집이 잘 없는데 여자라면 거의 국민학교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절에 서울 유학을 갔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인 목사님을 배필로 둔 덕분에 김순학님의 그 이후 고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신분이었지만 일본 경찰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내내 과수원에서 일만 하며 온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 말이다.

지금은 그 과수원을 차남 번(繁)씨께서 지키고 있다.

토지개량조합에 근무하면서 농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한 번씨는 은퇴 이후 부모님께서 가꾸시던 과수원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다.

1928년 이후 김응두 선비와 그 아내 백운선님, 아들 김용규 목사, 그 아내 김순학님이 바위산을 개간하여 조성해낸 과수원(명칭 富致園),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봄이 오면 무릉도원이 저라가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번씨가 보기에는 가슴속 깊이 조상님들의 흔적이 남은 애뜻한 곳이라.

다음은 40여 년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3남 현곤(憲坤)씨의 회고담. “지금도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어머니의 거친 손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4남4녀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시고 아무도 엇나감없이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만드신 것은 나라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침 동이 트기 전부터 밭에 나가 자식들을 위해 땀을 흘리신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감히 역사의 신사임당 못지 않은 위대한 어머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일제에 저항하여 37번이나 체포, 구금, 투옥, 고문을 당한 대선배님!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국가가 이 분에게 독립운동관련 훈장조차 수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가 물러가면서 수사 기록을 모두 불태워 버려 문서상의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당시 경산경찰서 마당에서는 사흘 동안 문서를 불태우는 연기가 솟았다는 증언이 있다).

일제 앞잡이들과 그 후손들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한 자들조차 독립군 군자금 조달을 위해 활동하다 투옥되었다는 거짓말로 독립운동가언하며 명예를 누리며 사는 반면 대선배님과 같은 분은 국가적 추모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극심한 관료주의의 낭패이다.

당시 대선배님의 활동을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모두 타계하고 없고, 경산시지 등 향토역사에만 기록이 남아 있으니 도대체 이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임진왜란의 투사 제말 장군이 훗날 조정대신의 꿈에 현몽하여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후손들을 꾸짖었다는 고사가 생각난다.

이제라도 우리 계성인들은 대선배님께 최고의 훈장이 추서되도록 힘! 을 모아야 할 것이다. 당신께서는 그런 훈장 따위를 받으려고 온몸을 고문의 상처투성이로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자라나는 후손들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글 · 정만진(61회)



▲ 대구 신암동 선열공원에 세워진 독립운동가 김용규 목사 묘비. 독립운동 33인 이갑성 옹의 비문과 청록파 박목월 시인의 추모시가 새겨져 있다.(사진 : 목사님의 3남 김현곤님 제공)

자동차부품 제조전문업체  
株式會社 料營  
www.dooy.co.kr

대표이사

李 永 敏 (66회)

경북 영천시 채신동 595-6번지  
TEL: (054)338-8011 FAX: (054)336-8013



# 「개교 101주년 기념」 및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기원 계성 OB산우회,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5,895m) 원정 등반대 5명 전원 등정에 성공 !!!

2007년 3월 27일 아프리카 케냐 몸바사에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최 결정을 앞두고 계성고 OB산우회 회장 홍종욱(65회·팔공건설(주) 대표) 외 4명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등정에 5명 모두 성공하였다.

2월 23일 밤 12시에 정상 공격을 위해 4,700m 키보를 출발한 원정대는 새벽 6시경 길만스포인트(5,681m)를 통과하여 8시30분경 킬리만자로 최고봉인 우후르 피크봉(5,895m)등정에 성공하였다

이날 정상 공격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 원정대와 동시에 출발하였으나 길만스포인트(5,681m)지점부터 영국, 이탈리아, 일본 원정대는 탈진과 고소증세,

추위와 강풍으로 인해 정상을 눈앞에 두고 대부분이 포기를 하였으나 계성 OB산우회 대원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5명 전원 등정에 성공하였다.

원정대원 5명중 특히 김영수 원정단장(51회)께서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홍종욱 등반대장(65회)에 이어 두 번째로 정상을 밟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킬리만자로(5,895m)는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 사이에 있는 산으로 아프리카 최고봉이며 정상은 만년설과 빙하로 이루어져 있다.

등반대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원정단장 김영수(51회), 원정대장 오재천(57회), 등반대장 홍종욱(65회), 대원 서승교(89회), 대원 한고명(90회)



▲ 좌로부터 서승교(89회), 오재천(57회), 김영수(51회), 홍종욱(65회), 한고명(90회)

## 모교 소식

### ■ 2008학년도 대입 논술 대비 교사 논술 강좌

모교에서는 2008학년도 대입에서 논술이 강조됨에 따라 전교직원을 상대로 논술대비 교사 논술 강좌를 2회 개최했다. 1차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교 이상태교수를 초청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90분 동안 연수를 했고 2차는 서울대 언어학과 권재일(59회) 교수와 물리학과 홍종배(55회) 교수를 초빙하여 2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연수를 했다. 특히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두 분 동문은 모교 후배들을 위해 어려운 시간을 쪼개어 특강을 수락했다.

### ■ 고3 학생 서울대 방문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성취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 매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올 해는 계성학교 학생 16명과 신명학

교 학생 6명이 교감, 연구부장, 3학년부장과 함께 2월 26일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국회의사당 등을 방문했다.

서울대학교 방문 시에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생들이, 국회의사당 방문 시에는 모교 출신 국회의원이 학생들을 마중 나와 안내해 왔는데 올 해는 김석준(56회)의원이 국회의사당 안내를 해 주었다.

특히 학생들의 서울 방문을 격려하기 위해 임주재(59회, 금융감독원 부원장)동문과 김영기(59회, 산업은행 이사)동문이 점심으로 뷔페를 제공해 주었다. 이 두 동문은 김재현(59회)교감과 동기생으로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에 지원한 4명의 학생들이 논술과 면접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모교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저녁 만찬을 제공해 주었다. 그 효과가 있었는지 정시 모집에 응시한 4명의 학생들 모두 1차 발표에서 합격하는 결과를 낳았다.

### ■ 올해 대입에서 분전

나날이 열악해지는 상황에도 모교의 올해(94회) 대입 성적은 최근 몇 년에 비해 좋은 결과를 낳았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대학교 5명(의예과1명, 사회과학대 2명, 공대 1명, 농대1명), 고려대 1명, 연세대 1명을 비롯해 서울·경기 지역에 24명이

합격했고, 경북대학교 58명등 4년제 대학 진학률이 70.53%였다. 한편 학생들의 최근 경향은 현재의 취업난을 반영하듯 무조건 4년제를 고집하기 보다는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학을 찾는 경향이 뚜렷하다.

### ■ 명예 졸업자 선정

2006년 12월 22일 전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졸업사정회에서는 명예졸업자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대상자는 신일희(44회,유학), 박대위(42회,유학) 2명으로 이 두 동문은 재학 중 학교에서 선발되어 미국 유학길에 올라 계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참전 및 유학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된 동문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명예 졸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전에 있었던 명예 졸업자는 다음과 같다. ▷1997년-이영일(37회, 참전), 2003년-윤한수(38회,참전), 윤한수(38회, 참전)

### ■ 운동부 올해 입상 성적

#### ◆ 유도부

· 제77회 YMCA 전국유도대회 단체전

3위, 개인전 -81Kg 3위

· 2006 하계 전국 중등학교 유도연맹전 개인전 -73Kg 2위

· 2006 추계 전국 중등학교 유도연맹전 개인전 -55Kg 3위, -90Kg 2위

·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73Kg 3위, -90Kg 1위

· 제6회 탐라기 전국유도대회 개인전 -60Kg 3위, -90Kg 1위

#### ◆ 볼링부

· 제21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학볼링대회 개인전 금메달, 5인조 금메달

· 제8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2인조 은메달

· 제17회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 4인조 금메달

· 제11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남녀 학생볼링대회 3인조 동메달

· 2006 KBS 부천대학장배 전국우수고교볼링대회 2인조 동메달, 개인종합 동메달

· 제87회 전국체육대회 5인조 은메달

#### ◆ 농구부

· 제43회 춘계전국농구대회 3위

· 제87회 전국체육대회 3위



## ‘유관순 햇불賞’ 수상 모교 2학년 김보영 양 “인간 유관순에 매료 열사 정신 실천할 터”

“유관순 열사가 요즘 태어났다면 사회 부정과 병폐들을 고치기 위해 앞장서는 활동적인 청소년이 아니었을까요?”

충청남도가 제정한 ‘유관순 햇불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김보영(17·계성고 2년)양은 이렇게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이 상은 유관순상위원회가 봉사활동 경력과 애국 정신이 돋보이는 전국의 고교 1학년들을 선발,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 6회째이

다. 모두 7명이 선발됐으며 대구·경북 학생으로는 김 양이 유일하다.

김 양은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라고 말했다. 당시 전교회장이던 김 양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맞서 항의 편지를 쓰자고 학교와 동급생들에게 제안, 일본 대사관에 ‘편지 시위’를 벌였다. 꾸준한 봉사활동도 돋보인다. 중학교 때부터 대구 성로원에서 몸

이 아픈 노인들의 손녀가 돼 말동무, 휠체어 밀어드리기, 청소·빨래 등을 도왔다. 지난해는 성로원에서 만난 치매 할머니와의 일화를 소재로 쓴 글이 대구시 자원봉사 수기 공모에 입상했고, 같은 해 통일일을 주제로 쓴 글이 통일부 장관상에 뽑히기도 하는 등 글솜씨도 뛰어나다. 지난 달 23~25일 대회 수상자를 가리기 위해 열린 ‘유관순 워크숍’에서는 ‘학교 체벌에 대해 열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 양은 이번 상 공모에 참가하면서 인간 유관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열사는 감옥 안에서조차 함께 투옥된 산모를 위해 자신의 허리에 찢은 기저귀를 감아 말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인간적인 면모 아닌가요.”라며 “열사의 정신을 실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이달 30일 유관순 열사 모교인 서울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리며 수상 학생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매일신문 3월 2일자〉



## 동창회 동아리 소식

## ◆ 산우회

충동창산우회는 지난 2006년 12월 3일 경북 문경 운달산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회계 및 감사보고를 하였고, 전임 황성길(51회) 회장의 후임으로 김시우(52회)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김시우(52회), 감사 : 김일득(50회), 권영보(62회), 등반대장 : 류청웅

(48회), 이승엽(61회), 송준석(67회), 총무 : 신대수(70회), 노규영(71회)

1월 7일 경주 남산에서 신임집행부 주관하에 2007년 시산제를 약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는데 시산제에 이어 떡과 동동주로 한 해의 무사산행을 기원하였다.

3월 4일 부산 기장군 달음산에서 약 9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6차 정기산행을 실시하였고, 산행후 새우와 막걸리로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다음 제87차 정기산행은 4월 1일(일) 통영 사랑하도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여러 회원뿐만 아니라 기타 많은 동문 여러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 ◆ 기우회

지난 3월 14일 저녁 7시 시내 한정식집 아리랑에서 이 순(59회) 회장 주재하

에 확대 회장단 회의를 열고 2007년 신임 회장에 박영태(60회), 대신물산 대표이사) 동문을 선출, 총무에는 김기영(72회) 동문이 임명되었다.

이어서 자리를 옮겨간 뒤풀이 장에서는 나날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기우회에 대해 끊임없는 애정과 기발한 계획들이 논의 되었고, 선·후배간의 수담과 주담들을 언제든지 하자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2007년도 사업계획으로는 4월경 계성 기우회장배 바둑대회(개인전), 6월경 총동창회 기수별 바둑대회(단체전), 10월경 제5회 계성·경북고 정기교류전, 12월경 계성바둑인의 밤 등이 예정되어 있다.

## 지 부 소 식

## ◆ 재부지부

2006년 12월 13일 부산 초량동 노블리아루페 연회장에서 2006년 재부 계성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40회 이영목 선배를 비롯한 연로하신 선배님들과 바쁜 가운데도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선후배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2006년 정기총회에서는 2007년도 임원선출과 예결산심의, 정관개정의 안건으로 시작되었으며, 2007년도 임원으로는 회장 정덕수(51회), 총무 김승용(61회), 부총무 남기성(67회), 감사 조정호(52회), 황용욱(56회), 재무 김인식(67회)가 선출되었으며 나머지 안건들은 참석하신 선후배님들의 열화와 같은 만장일치 박수속에

무사히 통과되었다.

2부 송년회에서는 많은 선후배님들이 찬조해 주신 푸짐한 선물들로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빙고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2007년에는 더욱 알차고 자랑스러운 동문회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행사를 마감하였다.

2007년 2월 8일 부산 연산동 해상회초 밥집에서 정덕수 회장을 비롯해 직전회장, 감사, 총무, 재무 등 상임이사진들의 인수인계 및 2007년을 힘차게 이끌고 나갈 의견과 방향들을 심도있게 다루었다.



회 장  
정덕수(51회)



총 무  
김승용(61회)

## ◆ 고령지부

2006년 12월 21일 한의숯불가든에서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지부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신임 회장에 김수호(52회), 총무는 유임하기로 하였다.

## ◆ LA지부



2006년 12월 22일 L.A. 소재 월서 플라자 호텔에서 내외 귀빈 그리고 계성동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성 100주

년 기념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특히 모교에서 참석해 주신 고등학교 정인표 교장 선생님과 총동창회 사무국장인 김정길 동문께서 더욱 자리를 빛내 주셨다.

더욱이 가주에 있는 신명여고, 경북여고, 대륜고, 대구상고, 대건고등 동문회에서 많은 손님이 참석해 주셔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동문 목사님의 집례로 예배를 보았고 2부 식사에 이어 100주년 기념행사로 이곳 37회 박준환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 사무국장님 순서로 축사와 함께 모교 소식을 듣는 시간이 있었다.

아울러 감사패 증정과 뒤이은 여흥시간이 있었다. 행사장에 참석했던 동문들은 시종 흐뭇한 표정들이었으며 200주년을 향한 또 다른 출발을 위해 굳은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 기 별 소 식

## ◆ 제53회

△회장 : 최진영  
△총무 : 하태철

지난 2월 27일 대구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집행부를 선출하였다.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 최진영, 총무 : 하태철, 감사 : 서울용, 오삼수

## ◆ 제54회

△회장 : 정대현  
△총무 : 김동철, 최정태

2007년도 제1차 이사회를 2월 8일(목) 19시 유경술동문이 경영하는 침산동 '마패회가든'에서 정대현 회장 외 21명이 참석하여 개최하였다. 2007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심의하여 2007년도 예산을 확정하였다.

이사회에서는 합동 회갑연 개최에 관한 제안이 있어 제2차 이사회까지 시간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기타 기본 재산운용에 관한 제안도 있었는데 전국의 전체 동기생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007년도 대구 동기회 임원, 재경·재부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 정대현 ▷부회장 : 김복수, 우명정, 이호수 ▷감사 : 박기창, 이회술 ▷총무 : 김동철, 최정태 ▷서울 동기회 임원 - 회장 : 서대윤, 총무 : 김각환, 감사 : 이정우 ▷부산 동기회 임원 - 회장 : 김재현

## ◆ 제55회

△회장 : 이형우  
△총무 : 박수향

지난 2006년 12월 7일 송년회를 호텔 에어포트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하였다.

## ◆ 제58회



△회장 : 이재천  
△총무 : 김은홍, 이승현

2006년 12월 15일 계성 58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많은 동기들의 참여한 가운데 수성 관광호텔 송정식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애초에 70석을 준비하였는데 예상 밖으로 많은 동기분들이 참석하여 병풍 뒷쪽에 주당을 위한 특별석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1부 총회에서 금년도 임원은 전원을 유임키로하고, 2부 송년회 행사는 재경동기회에서 사회를 맡은, 금년에 다시 대구로 이사온 유영준 동기가 마이크를 잡고 먼저 노래 한 곡 신명나게 뽑고는 각 조별 풍선 불어서 풍선을 토스하다 마지막 풍선을 잡은 이종희 부인, 정면득 부인, 유대근, 엄재길, 김은홍, 우정구 부인 등 뒤이어 분위기를 띄웠다.

3분에 10개의 장식달기에 쿡구멍, 쿡구멍에 담배, 휴지끼우기, 포크머리핀에 네프킨 스카프... 우스꽝스런 광대들로 바뀐 모습에 박장대소하고, 이종희 사모님

의 열창과 엄재길 교장의 카리스마 넘치는 한판 춤사위에 모두들 뒤로 넘어갔다.

음악에 맞춰 모두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실내를 도는 기차놀이, 피파우스의 띠처럼 돌아가며 진행된 동기간의 덕담나누기, 촛불로 만든 "I LOVE 계성", 듀얼 "영욱"의 장기자랑... 흥겨운 장기자랑이 11시가 넘었는데도 계속되었다. 이날 81명의 동기가 참석해 주었다.

지난 2월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옆 '상락' 식당에서 2007년도 첫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 ◆ 제59회



△회장 : 이 순  
△총무 : 이전기

지난 1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총동창회 장세환 부회장 (47회 동보한 방병원장), 김정길(56회) 사무국장 등 내빈과 가족동반 등 100여명이 참석한 성대한 잔치였다.

새로 선출된 이 순 회장의 신년사와 장세환 총동창회부회장의 축사, 59회 동기생인 이인기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이택봉 직전회장에겐 박성대 총동창회장과 59회 동기회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이어서 만찬과 더불어 주흥이 도도해질

즈음 한기웅 전문방송인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여흥에서는 포항, 울산 등 각지에서 열성적으로 온 동기생들 때문에 더욱더 유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특히 울산 하종식 동기생 부인의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날의 압권이었다.

진한 부부애와 가족의 중요성과 역할을 일깨워주는, 막 초로에 진입한 그들의 위치를 더욱 깨닫게 해주는 감동의 순서였다.

끝으로 정해년 파이팅, 59회 파이팅을 외친 후 이 순, 엄희복, 왕종근, 현철영, 이성형, 장성운, 권순백, 한영권, 포항동기회, 계성고 사우회 등이 찬조해서 준비된 푸짐한 상품과 기념품을 들고 서로 악수를 나누며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동기생들간의 뜻깊은 모습에서 대 계성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 제61회

△회장 : 예병국  
△총무 : 배영호

지난 12월 9일(토) 2006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많은 동기들과 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종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예병국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06년도 사업계획과 결산서는 통과 되었으며, 이순동 동기의 감사보고에 이어 새로운 임원 선출에서는 박종호 동기의 현 회장 유임 동의안에 전 회원의 우뢰와 같은 박수로 통과되었다.

총동창회 간부들의 각종 행사 참여로 예병국 회장에게 수여되는 공로패는 유진 전임회장이 전달하였고, 61회 동기들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김연양 전임 회장의 건배 제의가 있었다.

이어서 금문수 동기와 양국신 동기가 이끄는 2부 순서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분위기를 이어 가다가 역시 61동기들 보다 몇 수 위에 있는 부인들의 노래



숨씨에 해빌레하게 정신을 잃은 동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몇몇 부인들의 노래 숨씨는 초창기부터 가수들 보다 훨씬 더 좋은 실력이었음을 인정하였다. 1, 2부를 마치고 계성학교 교가 1절을 부른 후 공식적인 모임을 마쳤다.

연말이라 각종 모임들로 인해 많은 동기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의 얼굴을 보려고 멀리서 와준 여러 동기들과 동기회 모임에 처음으로 참가한 친구(임대수, 허 황)에게도 감사한다.

#### ◆ 제62회

△회장 : 오창길

△총무 : 방인철

지난 12월 2일(토) 18:00 아미고(구. 금호)호텔 5층 아미고홀에서 2006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 ◆ 제65회



△회장 : 구자일

△총무 : 서대교

지난 3월 1일 감삼동 서대구주유소 2층에 동기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동기들의 만남의 장소인 동기회 및 기우회 사무소를 마련하여 이날 개소식 및 2007년도 기우회 운영계획안을 결정했다. 사무소는 상시 오픈하며 시간은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우회 정기모임은 매월 2, 4째주 수요일로 정하였고, 이날 참석한 인원은 36명이다.

#### ◆ 제67회



△회장 : 공정섭

△총무 : 장동식

12월 2일 자금성에서 동기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총회 및 송년회 밤 행사를 가졌다. 신입회장에 공정섭 동기와 총무에 장동식 동기가 선출되어 2007년도를 이끌어 가게 되었다.

1월 19일 수립한정식에서 17명의 임원들이 모여 2007년 동기회 집행부 1차 모임을 가졌다. 주요 안건에는 2007년 회비와 신규행사인 '계성67회 가족 체육대회'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67회 가족 체육대회행사 일정은 2007년 5월중 대구 근교 초등학교로 잠정 결정하였다.

#### ◆ 제69회



△회장 : 반용석

△총무 : 김종율

3월 2일 19시30분부터 황금동 제주어촌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올해는 매월 첫째 금요일에 제주어촌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니 동기들은 주변 동기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며,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수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좋겠다. 당연 참가비나 식사비는 없다.

매월 이벤트 행사로 각반 반창회를 중점 지원하니 각 반별로 관심있는 친구는 김종율 수석총무에게 연락주면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연락처나 문자발송 등) 주요 안건에는 홈커밍에 관한 행사 내용 및 일정을 확정하고 5월 홈커밍 소식지에 발표 공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대단히 감사한다.

지난 2월 3일(토) 18시 30분 제이스호텔 에메랄드홀(구. 동대구호텔)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가져 차기 회장선출 및 홈커밍 행사를 안건으로 논의하였으며 재경동기회에서도 참석하였다.

#### ◆ 제70회

△회장 : 서영대

△총무 : 이익동, 신대수, 김종직

지난 2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황금동 '자금성'에서 신입이사와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동기회 운영 계획(안) 및 회칙 수정안을 승인하였다.

#### ◆ 제71회



△회장 : 정만현

△총무 : 박영일, 정홍철

2006년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일 돈박이 숲불촌에서 회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07년도 신입회장에 정만현, 총무에는 박영일, 정홍철 동기가 맡아 동기회를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다.

#### ◆ 제72회

△회장 : 김지웅

△총무 : 이병규, 이동엽

지난 2월 2일(금) 저녁 7시30분에 보성녹원에서 26명이 참석하여 신년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정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부회장 및 이사들은 회의 안건에 동의하였다.

안건은 연회비 및 1년 행사 일정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이사회 회의 결정 사항을 공지한다.

- 3월 경 : 동기회 주소록 발간
  - 4월 초순 : 이사회
  - 4월 중순 : 가족 체육대회(장소 : 잔디구장, 참석 : 71회, 72회, 75회)
  - 5월 : 총동창회 주최 체육대회(축구, 등반, 테니스, 바둑)
  - 6월~7월 : 동기회 여름캠프(장소 : 포항, 영덕사이 펜션 2박 3일 일정(금~토))
  - 9월 : 회보 2호 발간
  - 9월 중순 : 총동창회 체육대회 준비 이사회
  - 10월 초 : 총동창회 체육대회
  - 12월 : 총회 및 망년회
- 동기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힘찬 72회 동기회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3년 앞으로 다가온 '홈커밍 데이'도 준비를 시작하려고 한다. 모두 한마음, 한 목소리로 동기회를 이끌어 가 보자.

#### ◆ 제74회

△회장 : 김창호

△총무 : 유성현

2006년 12월 1일 동구 신암동 궁전라벤다 뒷쪽 '대해일식'에서 200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 26명의 동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고 다른 모임, 제사,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도 전화로 안부를 전해 주었다. 많은 관심을 보여 주어 정말 감사 드린다. 특히 부산에서 온 김재중 동기, 창원에서 온 박준곤 동기에게 특별히 감사 드린다.

이번 모임에서 2007년도를 이끌어 갈 새로운 회장단이 선출되었다. 회장에는 김창호 동기가 선출되었고, 총무에는 유성현 동기가 맡게 되었다. 새로이 출발하는 회장단에게 힘을 실어 주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 드린다.

2007년 1월 30일 옹골진 가마 화로구이에서 74회 신년회를 가졌다.

#### ◆ 제77회

△회장 : 서인규

△총무 : 정현철

2006년 12월 8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된 동기회 송년회는 그 어느 모임 때보다 유쾌하고 상쾌했었다.

뉴캐슬나이트클럽 옆 옛골한우식당에서 시작한 1차... 근방에 맥주집에서 간단한 호프 한 잔으로 마감한 2차... 헤어지기가 아쉬워하는 그 뜨거운 눈빛을 피해 집으로 가야만 했던 몇몇 친구들... 남아 있는 몇몇 친구들은 3차는 갔는지..

송년모임에는 24명의 친구들이 왔었다. 새로운 친구들도 있었고, 모처럼 나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시종 화기애애하게 무사히 즐겁게 마시고 놀다 갔었다.

여러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에, 현 회장단(회장 : 서인규, 부회장 : 우현수, 총무 : 정현철)이 다가오는 2007년 한해 더 고생하기로 하였다. 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준 여러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모처럼 나온 친구들... 또 새롭게 참석하여 준 친구들에게도...

다가오는 2007년에도 다들 건강하고 자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계성 77회 그 이름을 영원히 위하여...

## 인 물 정



▷김용진(45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인협회 이사장은 지난 12월 1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55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서양음악분야)을 수상하였다.



▷박운서(45회) 전 상공부차관이 현재 수년전부터 필리핀에서 현지인들을 가르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 12월 KBS 2TV 저녁 7시 30분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었다.



▷김문순(49회) 연세언론인회 회장 · 조선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무인 김 동문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07 연세 언론인 새

해 인사회' 행사를 가졌다.



▷김봉식(49회) 영남대 공대 디스플레이 화학공학부 교수는 2006년 12월 26일에 있는 한국화학 관련 학회 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2007년 1월 회장에 취임했다.

이 연합회는 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세라믹학회 등 5개 학회의 연합체이다.



▷한진호(50회) 대구시는 3월 6일 대구벤처센터에서 스타기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2007년도 스타기업 24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기업들 중 한 동문이 경영하는 (주)프로소닉도 선정되었다.

스타기업은 지난해 대구시가 확정한 스타기업 육성계획에 공모한 14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기관들의 추천과 재무건전성 평가, 현장실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됐다.

박광길 대구시 신기술사업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들은 지역경제

에 활력을 주고 성장을 주도해 나갈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며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운철(52회)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 경영자 협회는 2월 28일 제10대 회장에 유운철 현 회장(세광화학공업 대표)을 재선임 했다.

▷김성년(54회) 현대중공업(주) 해양플랜트부문 전무이사로 승진하였다.

▷진광업(54회) 경상북도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승진하였다.

▷이규백(54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대구광역시 지부장으로 취임하였다.



▷손수상(54회) 손 동문은 제14대 계명대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에 임명되었다.

신임 손 의료원장은 1973년 경북대의대를 졸업하고,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대한온열종양학회 회장, 동산병원장, 대한위암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 아시아태

평양학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암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곽태운(55회) 12월 8일 서울 시립대학교 경상대 학장으로 선출되었다.



▷박광길(55회) 대구시 신기술 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익환(56회) 대경포럼 공동대표는 대선 예비주자 초청강연회 시리즈를 기획, 첫 행사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초청강연회를 1월 18일 오후 4시 대구시 범어동 교원공제회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남기수(57회) 대구시는 3월 6일 대구벤처센터에서 스타기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2007년도 스타기업 24개업체를 선정했다. 남 동문이 경영하는 에스앤에스텍(주)도 전자통신 · S/W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함태홍**(57회) 함 동문이 농협중앙회 중부부장으로 영전하였다.



▷**나장백**(57회) 한국 폴리텍 섬유패션대학(학장 나장백(57회)과 이시아폴리스(대표 박형동·봉무산업단지 시행사)는 3월 7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섬유패션대학 봉무단지 이전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노영돈**(58회) 현대종합상사는 28일 경영진추천위원회에서 노 동문(현전무)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기로 하고 3월 7일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공석화 했다.

노 신임사장은 53년생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77년 현대종합상사에 입사한 이후 철강부와 홍콩, 로스앤젤레스 지사를 거쳐 96년 싱가포르 법인장을 역임했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철강 사업본부장을 맡아 왔다.

▷**김종원**(58회) 1월 22일자로 김포경찰서장에서 경기경찰청 보안과장으로 영전되었다.

▷**이용희**(58회) 에스-오일 부사장/생산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

▷**김무달**(59회) 농협중앙회 영덕군 부지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김동수**(59회) 대구지방법국세청 법인세과장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이 순**(59회) 한나라당 대구시당 정책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택봉**(59회) 종합건축사무소 남양대표는 대구수성관광호텔 라세트홀에서 열린 (사)한국 건축가협회 대구지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병현**(60회) 대구 남구청장은 28일 구청장실에서 노인수발보험 시범지역 평가 심사단을 만나 시설 인프라 기준과 시범사업 실시의지, 시범사업 확보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원진**(60회) 경산교육청 장학사에서 경주화랑 교육원으로 영전하였다.

▷**장지상**(60회)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교수는 지난 2월에 "한국산업 조직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남균수**(60회) 대우건설 경영관리본부 상무이사로 승진하였다.

▷**이인봉**(60회) POSCO 경영지원부문 정보기획실장으로 영전되었다.

▷**현성웅**(60회) 대구대학교 교수는 사회과학대학 학장, 사회복지대학원 대학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임운형**(60회) 대륜고등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다.

▷**최철암**(61회) 우리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최 동문이 강남역 교보빌딩 지점장에서 강북지역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박건현**(61회)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죽전점장)으로 승진하였다.

▷**이현복**(61회)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에서 본청 산불방지팀장으로 영전되었다.

▷**추연정**(61회) 현대·기아자동차그룹 KEFICO(주)에 근무하는 추동문이 상무이사로 승진되었다.



▷**나주영**(62회) (주)제일테크노스 대표이사는 3월 21일 상공의 날에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박재만**(62회) 하나은행 포항 기업금융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대구 서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장호**(62회)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상무보로 승진하였다.

▷**박오규**(62회) 현대자동차 소재공장 이사대우(공장장)으로 승진하였다.



▷**송종호**(62회) 중소기업청 인사발령에서 창업벤처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

▷**정영진**(62회) KCC(고려화학) 서울본사 재정담당이사로 전근하였다.



▷**이현희**(62회) 서부경찰서장에서 경찰청 경무과장으로 영전되었다.

▷**이광운**(62회)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영문과 교수에서 문과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반태석**(63회) 월배농협 본점 상무에서 중앙지점장으로 영전되었다.

▷**김명훈**(63회) 교육부에서 진주 경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영전되었다.



▷**이한성**(63회)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3월 5일부로 창원지검 지검장으로 영전하였다.

▷**최상록**(63회) 농협 대구본부 금융담당 부본부장으로 영전되었다.

▷**안승철**(63회)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학장에서 기초교육대학 학장으로 영전되었다.

▷**석기환**(63회) 검찰청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대구지검에서 청주지검 검사직무대리로 영전되었다.

▷**김상포**(64회) 우리투자증권 구미지점장에서 천호지점장으로 1월 15일부로 영전하였다.

▷**박해식**(65회) 전 대법원 부장판사인 박 동문이 삼성동 섬유센터 2층에 2007년 3월 13일(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했다.

▷**박동진**(65회)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가 2월 23일부로 대구 서부지검 부장검사로 영전되었다.

▷**정유수**(65회) 남북사무국에서 근무하던 정 동문이 2월 23일부로 통일부 서기관으로 승진되었다.

▷**홍종욱**(65회) 팔공건설 대표인 홍 동문이 계성 OB 산우회를 이끌고 2011년 세계육상 대구 유치 기원 길리만자로 등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환하였다.

▷**이동준**(65회) 남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았다.

▷**김병욱**(66회) 삼성엔지니어링 상무로 승진하였다.



▷**홍창호**(68회) 2006년 말 자유총연맹 대구 남구지부장으로 취임하였다.

홍 동문은 대구 남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바르게 살기협의회 부회장 등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종문**(69회) 남부서 형사과장에서 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영전되었다.



▷**박승규**(70회)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제11대 노조위원장으로 박동문이 당선되었다.

## ◆ 축하드립니다.

▷**서명수**(45회) 딸 결혼(1/19)

▷**박대호**(45회) 삼녀 결혼(1/20)

▷**서건이**(45회) 장남 결혼(12/29)

▷**양해건**(47회) 3녀 결혼(3/3)

▷**김두환**(53회) 장녀 결혼(3/1)

▷**권대균**(53회) 장녀 결혼(3/10)

▷**신재학**(53회) 장녀 결혼(2/9)

▷**박진영**(53회) 장남 결혼(2/3)

▷**하태철**(53회) 차남 결혼(12/17)

▷**최진영**(53회) 장남 결혼(12/9)

▷**전재열**(53회) 차녀 결혼(11/11)

▷**황순길**(54회) 장녀 결혼(1/28)

▷**이동수**(54회) 장남 결혼(1/28)

▷**여운재**(54회) 장녀 결혼(2/3)

▷**이무원**(54회) 장녀 결혼(2/4)

▷**이창희**(54회) 장남 결혼(2/4)

▷**윤용수**(54회) 장남 결혼(4/21)

▷**박기창**(54회) 장녀 결혼(4/28)

▷**남영철**(54회) 장녀 결혼(3/10)

▷**김진호**(55회) 장녀 결혼(11/18)

▷**윤태석**(55회) 장녀 결혼(12/2)

▷**김병조**(55회) 장남 결혼(11/25)

▷**이대운**(55회) 장남 결혼(12/2)

▷**김 연**(55회) 장남 결혼(12/16)

▷**김재연**(55회) 장녀 결혼(1/7)

▷**이경목**(55회) 장녀 결혼(1/14)

▷**정영현**(55회) 장남 결혼(1/13)

▷**손영대**(55회) 장남 결혼(3/3)

▷**서찬우**(55회) 장남 결혼(3/3)

▷**안동철**(55회) 장녀 결혼(3/10)

▷**이성수**(55회) 장남 결혼(12/30)

▷**김석준**(56회) 장녀 결혼(2/4)

▷**신유균**(56회) 중앙파출소 옆 '쥬 플러스' 커피숍을 개업하였다.

▷**장광석**(57회) 장동문의 영애가 서울대 경제학과 4년 재학중에 행정고시를 Pass하여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더니 드디어 지난 주에 재경부로 발령을 받아 연수기간 중 전체 종합성적에서도 1등을 차지하여 그 빛을 더욱 빛냈다.

▷**장제일**(58회) 장녀 결혼(12/15)

▷**최영욱**(58회) 장녀 결혼(12/17)

▷**최동광**(58회) 최동문의 장녀인 최지현양이 서울대 재학중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발령을 받았다.

▷**차이홍**(59회) 가창중학교 교감으로 취임하였다.

▷**남영철**(61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근무하는 남동문이 이번 인사에서 경륜운영본부 심판실장으로 영전하였다.

▷**윤대현**(62회) 우리은행 과천 중앙지점에서 본점 증권운영팀장으로 승진하였다.

▷**박효근**(62회) 2월 26일 「태양공인중개소」 확장 이전 개업하였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 '가' 상가 116호, H.P : 010-8364-0718)

▷**변대근**(65회) 지난 3월 13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에서 「마늘 인삼 갈비탕」을 개업하였다.(연락처 : 043-423-7575, 422-9494)

▷**송영일**(66회) 지난 12월 20일 일산의 젊음의 거리인 라페스타에서 송 동문이 400평 규모의 전국 최대의 막걸리 전문점 청송막걸리와 정구지씨집이라는 토속적 주점과 노래방을 개업을 하였다.

일반주점과는 달리 저녁시간에는 라이브 가수를 초청해 흘러간 7080의 노래를 라이브로 들려주고 다양한 요리를 개발 가족과 함께 들려도 아무런 부담없이 저녁식사와 음주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20실의 노래방과 함께 오픈하여 식사를 하신 손님께 열창의 기쁨도 드리고 있다.

회사의 회식장소로는 더없이 좋다. 식사와 음주 노래방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푸짐하게 풀코스 한방에 해결이 된다.

일산 근방에 있는 동문들은 한번 참석하여 송 동문을 격려해 주면 고맙겠다.

방문시는 필히 계성동문임을 자랑스럽게 알려주며 필히 보답한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8 라페스타 B동 4층, 연락처 031-902-4999, H.P 011-234-0125)

▷**유찬훈**(67회) 2월 3일 「파티마정형외과」 병원을 창설 조달청 옆 농협근처로 이전 확장 개원하였다.(연락처 : 053-582-5911, 016-242-1856)

▷**서충구**(71회) 12월 2일 북구 산격동 유동단지 입구 KT 맞은편에 「서한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 이 병원은 보호자 없는 노인요양병원이다.(연락처 : 053-383-9119)

##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광현**(20회) 별세(12/10)

▷**신용수**(35회) 별세(2/1)

▷**김수생**(38회) 부인상

▷**김재화**(45회) 부인상

▷**성보경**(52회) 모친상

▷**박현수**(53회) 모친상(1/6)

▷**진호준**(53회) 별세(12/21)

▷**권창운**(53회) 별세(12/14)

▷**손진두**(54회) 모친상

▷**이정우**(54회) 부친상(1/15)

▷**신영근**(54회) 부친상(1/20)

▷**전정석**(55회) 모친상(1/4)

▷**김영수**(55회) 모친상(2/12)

▷**서명호**(58회) 모친상(12/11)

▷**최양수**(58회) 부친상(1/1)

▷**권동희**(58회) 별세(1/20)

▷**이재목**(58회) 장인상(2/1)

▷**윤철희**(58회) 장모상(2/8)

▷**이만웅**(58회) 부친상(2/10)

▷**권재순**(58회) 장인상(2/17)

▷**배영욱**(58회) 부친상(2/26)

▷**이동호**(59회) 부친상

▷**이정수**(61회) 모친상(12/30)

▷**현순주**(61회) 부친상

▷**최치식**(61회) 장인상(1/22)

▷**박경호**(61회) 장인상(2/3)

▷**박성찬**(62회) 부친상(12/11)

▷**구본조**(62회) 부친상(12/17)

▷**김태현**(62회) 부친상(1/6)

▷**전용훈**(62회) 부친상(1/29)

▷**김유식**(62회) 모친상(2/7)

▷**권오경**(62회) 부친상(2/8)

▷**배영웅**(62회) 부친상(2/26)

▷**지경진**(62회) 부친상(2/26)

▷**박판동**(62회) 모친상(2/27)

▷**하병기**(62회) 장모상(3/1)

▷**장호근**(62회) 형님상(3/10)

▷**오근훈**(64회) 부친상(1/28)

▷**배찬웅**(65회) 부친상(12/26)

▷**남시홍**(65회) 부친상(2/7)

▷**손종근**(66회) 부친상(11/12)

▷**황경록**(66회) 모친상(12/11)

▷**이원호**(66회) 부친상(12/11)

▷**진종길**(66회) 부친상(12/19)

▷**강규모**(66회) 모친상(1/24)

▷**이원희**(66회) 부친상(2/5)

▷**김주섭**(66회) 부친상(2/21)

▷**심광석**(67회) 부친상(1/5)

▷**송권익**(67회) 모친상(1/8)

▷**양준철**(67회) 모친상(1/28)

▷**김수봉**(67회) 부친상(2/18)

▷**김인식**(67회) 모친상(2/28)

▷**박건호**(67회) 부친상(3/4)

▷**김도균**(69회) 부친상(11/20)

▷**이시홍**(70회) 부친상(11/20)

▷**김왕진**(70회) 모친상(12/22)

▷**장동현**(71회) 부친상(11/4)

▷**한규철**(71회) 부친상(12/4)

▷**박기홍**(71회) 모친상(1/3)

▷**박용상**(71회) 부친상(3/9)



## 건강비결



박성대 (38회) 총동창회장

“지압, 小食, 웃음, 골프...  
건설회사 평시원에서 회장에  
이른 (주)대동주택 박성대  
명예회장의 “건강 비결”

## 매일 아침 지압으로 하루 열어

그의 건강 챙기기는 오전 5시에 눈을 뜬 뒤 누운 채로 복부 지압에서 시작된다. 배꼽에서 생식기 근처까지 양 손가락(엄지를 제외한 4개) 끝으로 세 번 이상 힘껏 눌러준다.

이어 배꼽에서 오른쪽으로 10cm 떨어진 부위에서 아래로, 다시 왼쪽으로 10cm 떨어진 부위에서 아래로, 각각 세 번 이상 지압한다.

누운 채로 이번엔 양손을 포개 배꼽을 중심으로 배 전체를 누른 채 시계방향으로 36회,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36회 회전시킨다. 이어 목과 편도 주위를 두 손가락으로 36번 ‘콕콕’ 눌러주고(편도 건강), 주먹을 왼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코의 좌우측을 각각 36번 문질러준다(축농증 예방).

박 회장은 “지압으로 자극을 가하면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이곳으로 몰려온다”고 설명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는 “잇몸과 이가 아프면 깨끗한 손가락으로 잇몸을 2~3분간 주물러주고, 눈이 불편할 때는 눈 위에 깨끗한 손수건을 덮고 눈 언저리를 지압하며, 눈동자 위를 누르고 비빈다”고 한다.

“지압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생전에 친하게 지냈던 고 안현필 선생(삼위일체 건강법)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소식과 세 끼 식사 챙기기도 그의 건강 비결이다. 아침밥은 다섯 숟갈 정도 뜬다. 메뉴는 늘 잡곡밥에 된장찌개, 콩, 김치, 채소다.

웃음도 그의 건강을 돕는 ‘영양제’다. “상사의 칭찬을 받았을 때는 인삼,녹용을 먹은 것보다 기분이 좋았다”는 자신의 말단사원 시절 경험을 지금은 직원들에게 되돌리고 있다.

“직원이 실수했을 때는 그의 장점부터 먼저 찾는다. 화를 내고 미움이 있으면 내 건강을 해친다.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생활하면 건강이란 선물을 받는다.”

늘 ‘기브 앤드 테이크’(주고받기)만을 따진다면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보는 그다.

‘기브 앤드 기브·기브’(주고 또 주기)의 봉사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 상대에게 줄 것이 없으면 웃음·친절·심부름이라도 했다고 한다.

골프는 처음엔 불가피하게 선택했지만 지금은 꼭 빠져 있다. 올해 78타까지 친 적도 몇 번 있다.

“젊을 때 오토바이로 건설현장을 누비다가 고관절이 망가져 1983년과 96년에 각각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주치의로부터 ‘높은 데 오르지 말고, 뛰거나 넘어져선 안 되며,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다.” 그래서 시작한 운동이 골프라고 했다.

박 회장은 최근 ‘산천초목 건강풍월’이란 책을 써서 자신의 건강법을 소개했다.

그는 “의학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있을까 두려워 집도의인 경희대병원 유명철 교수에게 보여드렸는데 ‘좋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 의학정보



장세환 (47회) 동보한방병원 원장

“1인 하루 평균 900ml 흘려  
‘체온조절’ 인체의 생리현상  
한방에선 도한증 등과 구분  
부위 따라 처방 달리 내려

땀의 많고 적음은 ‘체질’  
氣 허약할 때도 나타나

## 다한증

여름철이면 실새없이 줄 줄 흘러내리는 땀. 땀은 체열을 식히는데 필수적인 생리현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는다.

사람은 300만개의 땀샘을 통해 하루 평균 900ml의 땀을 흘린다. 얼굴과 몸통에 생기는 땀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발생하고 손·발의 땀은 정신적으로 긴장했을 때 교감신경이 흥분해 생긴다. 그러나 땀이 많고 적음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체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땀이 많은 다한증(多汗症)은 연일 기온이 30℃를 웃도는 여름,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불쾌감을 더하기에 충분하다.

키보드에 땀이 떨어져 컴퓨터 사용이 어렵고 더 나아가서는 땀 때문에 골프·테니스 등 운동을 하는데도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다한증을 서양의학에서는 그 자체가 병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동양의학에서는 해석을 달리한다. 열이 많이 나는 사람에서 나는 땀과 기(氣)가 허(虛)한 사람에서 나는 땀으로 나누고 「다한증」과 「도한증(盜汗症)」으로 구분한다.

「다한증」은 가만히 있어도 지나치게 많은 양의 땀이 쏟아지는 증세로 주로 병을 앓은 뒤나 몸이 극도로 허약해졌을 때

생긴다.

「도한증」은 잠을 자려고 누워서 눈을 감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땀으로 음허(陰虛)에서 오며 폐결핵 등 소모성질환에서 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질적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몸에서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음경락(陰經絡)의 말단부위에 해당하는 겨드랑이·손바닥·발바닥·음부 등과 코끝·인중·머리 등 안면부, 그리고 가슴과 목이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날 경우는 체질에 따라 「암내」라고 하는 특이한 냄새가 풍기는데 이는 주로 사춘기 이후부터 나타난다.

「다한증」에는 생맥산(生脈散),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 등에 향유와 백편두(白扁豆)를 첨가해 쓰면 원기가 회복되면서 효과가 나타난다.

또 요통증상과 함께 손발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양의 땀이 나 골프를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양기가 허한 것이므로 보음탕(補陰湯)을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머리부분에 땀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는 「두한증」에는 시호계지건강탕(柴胡桂枝乾薑湯)이나 우귀음(右歸飲)이 좋다.

「도한증」에는 당귀육황탕(當歸六黃湯)이 좋고 발한약(發汗藥)을 남용, 지나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망양증(亡陽症)」은 계지부자탕(桂枝附子湯)을 쓰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명지건설주식회사

MYONG JI CONSTRUCTION CO., LTD.

토건 제03-0039호 · ISO14001 · ISO9001

www.myong-ji.co.kr

代表理事

徐 熙 東 (68회)

(701-804)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84-664

TEL : (053)981-9005(代) FAX : (053)981-1984

H.P : 011-507-2778



## 동문시단

## 인디언 카페에서

박 병 화 (68회)

비 개인 오후엔  
앞산 인디언카페 창가에 앉아  
헤즐넛 한 잔을 마신다.  
보고픈 그대....

물기 머금은 시내를 내려다 보며  
지난 시간의 강에 빠져들면.  
저만치에 떠오르는 그대 그림자~!

삶이  
항상  
아름답진 않더라도.  
지난 날의 실루엣들이  
파아란 나무 가지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그리웁다 그대~!  
오는 계절엔  
차가운 외투깃을 세운채  
그대 떠난 곳으로  
밤새워 흘러...

아직  
겨울이 서성이는  
그 호수엔  
노오란 달빛이 얼어있다.



현 영신고등학교 근무

## 동·창·회·계·시·판

- ★4월 29일 65회 주관으로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예정
- ★계마회는 4월 22일 달성군청에서 개최하는 참꽃 마라톤대회 참가
- ★산우회는 계성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기별 등반대회를 5월 13일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아직 미정
- ★기우회는 계성학교 총동창회장배 바둑대회를 6월 6일 개최할 예정
- ★재경 계성동창회는 제23회 재경 계성가족친선체육대회를 6월 6일 한강 고수부지에서 개최할 예정

## 알림

- ★동창회보에 게재할 개인별, 기별 기사 및 광고 원고를 매월 15일까지 총동창회 홈페이지 및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창회보 구독료 납입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합니다.(년 1만원)
- 홈페이지 <http://www.keisung.or.kr> / E-mail : [keisung@keisung.or.kr](mailto:keisung@keisung.or.kr)

## 계성빌딩 임대 특별우대

임대

치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증권사, 보험사

[www.keisungschool.net](http://www.keisungschool.net)

학교법인 계성학원 법인사무국 ☎(053)253-5578, 011-9377-5537

한겨레 신문 차한필(64회) 기자의 중국 동포사회 리포트  
『중국 속에 일떠서는 한민족』

중국 전역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선다. 이 책은 한겨레신문 차한필(64회) 기자가 중국에서 2년여 간 생활하고 동포언론 『흑룡강신문』에서 논설위원과 고문으로 활동하는 동안 중국에 있는 한국인과 중국 동포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취재한 기사들로 엮여졌다.

하루 1만 명이 넘는 동포가 중국을 찾고,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동포는 45만 명을 넘으며, 40만여 명의 중국 동포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중 수교 등의 여파로 중국 전역과 한국 등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책은 이와 같이 지각변동을 일으킨 중국 속 동포사회의 변화와 현 주소를 살펴본다.

저자는 중국 최남단 하이난섬에서부터 최북단 흑룡강성에 이르기까지 마치 중국 해안선을 따라 에스(S)자 형태로 퍼져 있는 동포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간다.

각 지역 동포사회의 형성과 발전과

정 그리고 교육, 생활환경 등 현 상황에 대한 조명을 통해 동포사회의 미래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한편,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넘어가야 할 문제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간 한국인과 중국에서 나고 자란 중국 동포들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떻게 변천하고 살아내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에서 시작하여 광둥, 화둥, 산둥, 베이징-톈진, 요녕, 길림, 연변을 거쳐 중국 최북단인 흑룡강을 찾아다니며 우리 동포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정착하고

있는지, 경제상황은 어떠한지, 또 동포단체와 교육환경은 어떠한지, 향후 발전 가능성과 동포사회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심층적이고도 현장감 있는 취재를 통해 동포사회의 생생한 '오늘'을 보여준다.

도서출판 예문서원 / 신국판 336면  
차한필 지음 / 정가 15,000원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지식의 '선택과 집중' Must do! 시리즈

## 『기본동사 15개로 영어회화 끝낸다』

오범탁(70회) 동문이 영어학습서를 출간하였다.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영어책이지만 중학생들도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할 때 모든 내용을 무조건 외우려고만 한다. 하지만 오범탁 동문은 뜻을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기본의미에서 파생의미로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사동사, 연결동사, 무의미동사라고 하는 영어 동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영어를 접근한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문법 사항 중에서 어떤 것은 당장에 버려야 할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던 고

루한 문법 사항이 왜 중요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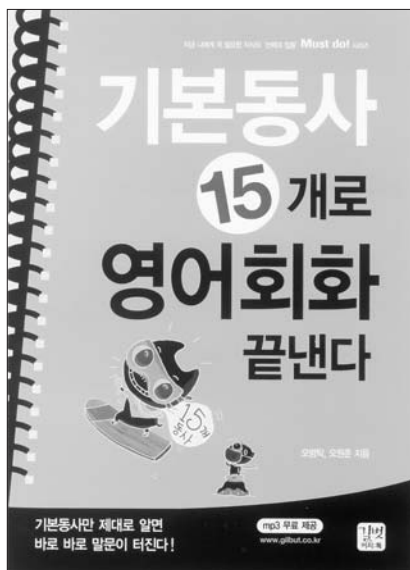
2부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15개의 동사(get, have, make...)를 선정하여 1부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기본의미에서 수십 개의 파생의미로 다양하게 확장되는 과정을 우리말과 비교하면서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다.

이 책은 말하기에서 동사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능력을 주는 것은 물론 읽기, 쓰기에도 도움이 되며 MP3파일이 제공되므로 듣기 훈련에도 좋은 책이다.

오범탁 동문의 16년간의 교사 생활의 경험이 집약되어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일대 전환을 불러올 만한 혁신적이고 훌륭한 책으로서 계성 가족 여러분의 일독을 권한다.

길벗이지톡  
오범탁, 오원준 지음 / 정가 8,000원





## 신비의 기체-OZONE

# “세계인의 식수는 오존처리수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파리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오존은 전염병이 발생한 물도 완전히 정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O<sub>3</sub> WATER는 단순한 여과식 정수기가 아닙니다.

음용수와 외용수로 분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건강한 생수를 제공하는 음용수와 멸균, 소독, 탈취 등의 기능을 가진 외용수(소독수)로 분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sub>3</sub>WATER로 고도정수처리수와 소독수를 동시에!



#### 완벽살균

오존처리된 물을 식수로 사용하면 대장균, 일반세균, 박테리아, 중금속 등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



#### 위생수 공급

오존성분이 상수도 배관자체를 지속적으로 세척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본질적으로 위생수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과일, 야채류 및 생선류 세척

표면에 서식하는 기생충과 박테리아, 비브리오, O-157, 살모넬라 등을 2분 정도의 세척으로 99.9% 멸균



#### 병원기구 소독

병원에서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위내시경 등 기구의 병원성 세균을 완벽하게 살균, 소독함



#### 식기 및 주방용기의 멸균 소독

식기 및 싱크대의 하수구와 욕실의 살균뿐 아니라 불쾌한 악취 제거



#### 발암물질 제거

수도물 정수과정에서 사용되는 잔류염소와 유기물의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을 신속히 분해함



#### 세탁물 멸균

옷이나 천, 침대커버 등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박테리아 및 진드기를 박멸시켜 환절기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예방에 좋으며, 빨래를 깨끗이 세탁하게 한다.



#### 충치예방

오존수를 사용하여 양치하면 충치예방 및 치아건강 등의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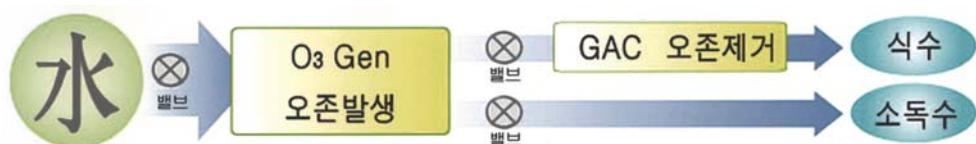
#### 피부미용 효과

피부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노폐물 제거로 인한 피부노화 방지 및 피부건강 효과와 오존이 분해될 때 생기는 음이온으로 피부건강에 도움을 준다.

### 이젠 병원에서도 O<sub>3</sub>WATER로 완벽한 살균, 소독이 가능!

오존(O<sub>3</sub>)수는 농약은 물론 중금속, 발암 물질, 병원성 세균등을 직접 산화, 분해, 살균하고 산소로 환원되므로 이차공해 발생이 없습니다.

#### O<sub>3</sub>WATER의 공정



대표 전 병 준 (53회)